

『黃帝內經』에 나타난 眼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연구

李丙旭* · 金基郁 · 朴炫局**

* 大邱韓醫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 study of optical structure and function in 『Huang Di Nei Jing』

Byung-wook Lee, Ki-wook Kim, Hyun-kook Park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guhami University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kook University

In the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the number of texts concerned with the letter 'eye' is listed on the [chart] below.

[chart] The number of texts in 『Nei Jing(內經)』 concerned with the letter 'eye'

Section(區分)	Number of word (文字數)	Number of text (條文數)	Number of texts concerned with ophthalmology (眼科關聯 條文數)
The structure of the eye(眼 之構造)	Yan(眼)	11	11
	Mu(目)	182	180
	Jiu Qiao(九竅)	14	14
	Tong Zi(瞳子)	6	6
	Jing(睛)	1	1
	Kuang(匡)	2	2
	Zi(眦(毗))	34	34
The function of the eye(眼 之機能)	Jian(見)	191	17
	Lei-Qi(泪·泣)	50	27
	Mang(盲)	4	4
	Ming(瞑)	24	20
	Shi(視)	121	21
	Ye(液)	71	7
	Run(潤)	6	1

key words: ophthalmology, 『Huang Di Nei Jing』

I. 序 論

眼의 聲符는 良이다. 『說文』에서는 “目也”라

하였다. 限은 사람이 역행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退에 따르는 것과 呪眼을 나타내는 限에 따르는 것이 있다. 眼의 옛 자형은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限은 아마 限字에 따른 限의 聲符가 아닌가 한다. 限은 신이 내려오는 神梯의 언덕 앞에 呪眼을 내걸었는데, 이를 겁낸 사람이 돌아서는 모습의 글자이다. 限은 呪眼을 말하는 글자이다.

目은 『說文』에서 “目，人眼也，象形，重瞳子也”라 하였다. 『尚書大全』에서는 옛 성인인 舜을 重瞳子라 하였고, 『史記』에서는 項羽도 重瞳子라 하였지만 이 글자는 橫目を 세로로 늘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眼球, 眼睛을 나타낸 글자가 臣이고, 望, 監 등과 같은 글자는 그 형태에 따른 것이다. 目を 動詞로 사용할 경우에는 目擊, 目送, 目禁 등과 같이 쓰인다¹⁾.

五官 방면의 고대 생리해부지식은 먼저 동물에서 체득하였는데 당시 상형문자에서 이러한 특징을 많이 반영하였다. 清末 葉德輝는 “目”字的象形을 논할 때 이러한 점을 언급하여 “人眼橫，獸眼直，魚鳥眼圓”이라 하였다. 古文에서 “目”은 眼球이고, “眼”은 위아래 눈꺼풀 속에 있는 전체적인 눈의 해부학적인 부위를 개괄한 것이다²⁾.

최초의 문자인 甲骨文에서는 직접 인체부위로 질병현상의 명칭과 종류를 나타낸 것이 흔한 방식이었다³⁾. 『내경』에는 아직 독립적인 안과학술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안과와 관련된 눈술만을 選集하여 정리하면 당시 안과학에 관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이와 관련된 『내경』의 원문을 정리하면 총 603곳에서 안과와 유관한 글자의 조문을 찾을 수 있었고, 『소문』과 『영추』의 비율은 341건 : 262건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맥

상 직접적으로 눈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이 없는 조문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직접 눈과 관련된 내용들은 총 345건이 있었다⁴⁾.

본 논문의 연구 범주를 『내경』에 기재된 해부학적인 눈과 그 주위의 구조를 뜻하는 ‘目’、‘眼’、‘九竅’、‘瞳子’、‘睛’、‘匡’、‘毗(眦)’ 등의 구절을 찾아보고, 아울러 눈의 기능과 생리 병리와 관련된 ‘見’、‘視’、‘盲’、‘瞑’、‘淚’、‘泣’、‘液’ 등의 구절을 찾아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의학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안과 분야가 오늘날 서양 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著者は 한의학적인 안과 분야를 되살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문헌적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최근 국내⁵⁾와 국외⁶⁾의 안과 학설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경』에 수록된 안과 이론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눈의 구조

1) 眼

『내경』에는 ‘眼’자를 포함하는 조문이 총 11개 있다. “精氣는 눈의 오목한 곳에 모여들어 眼

4) 眼(11)+目(180)+九竅(14)+瞳子(6)+睛(1)+匡(2)+毗(34)+見(17)+淚泣(27)+盲(4)+瞑(20)+視(21)+液(7)+閫(1)=345

5) 蔡炳允 著：『漢方眼耳鼻咽喉科學』，集文堂 1989年，姜忠揆 외1人 著：『眼科에 대한 文獻에 發見된 發展史』，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7年，金聖倍 외2人 著：『金元四大家의 眼病治療法에 關한 文獻的 研究』，外官科學會誌 7卷 1號，1994年.

6) 馬繼興 著：『中醫文獻學』，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年，唐由之 외5人 著：『中醫眼科全書』，人民衛生出版社 1996年，廖品正 외9人 著：『中醫眼科學』，人民衛生出版社 1990年，李傳課 외11人 著：『中醫眼科學』，人民衛生出版社 2002年，王洪圖 외55人 著：『黃帝內經研究大成』，北京出版社，1994年.

1) 白川靜：『字統』，平凡社，1986年，p. 136, 824.
2) 范行准：『中國病史新義』，中醫古籍出版社，1987年，pp. 8586.
3) 즉 ‘目’字 뒤에 몸의 어느 부위나 어떤 공능을 표시한 글자를 첨가하였는데, 예를 들면 ‘目’、‘目言’、‘目尿’ 등과 같다.

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 骨(腎)의 精은 瞳孔이 되고, 筋(肝)의 精은 검은자위가 되며, 血(心)의 精은 눈 안쪽 모서리의 血絡이 되고, 氣(肺)의 精은 흰자위가 되며, 肌肉(脾)의 精은 눈꺼풀이 되고, 筋·骨·血·氣의 精氣를 포괄한 것과 脈絡이 합쳐져 目系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눈에 五臟五體의 모든 功能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瞳子와 검은자위(黑眼)는 陰臟(腎肝)에 속하고, 흰자위(白眼)와 赤脈은 陽臟(心肺)에 속하므로 陰臟과 陽臟의 精氣가 모여야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靈樞·大惑論』⁷⁾).

足太陽膀胱經이 項部를 지나 腦에 이어지는 부위가 있어 곧바로 目本에 속하는데, 이를 眼系라 한다(『靈樞·寒熱病』⁹⁾). 그리고 胃氣는 상행하여 肺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悍氣는 頭部로 솟아올라 咽喉를 따라 七竅로 가고, 다시 眼系를 따라 腦에 絡한다고 하였다(『靈樞·動脈』¹⁰⁾). 그러므로 邪氣가 목덜미(風府·天柱穴)에 침입하여 인체의 허약한 틈을 타고 깊숙이 들어가면 眼系를 따라 腦로 들어간다(『靈樞·大惑論』¹¹⁾). 眼과 腦를 이어주는 경락적인 경로를 眼系라고 표현하였다. 風邪가 目系를 침범하면 目風, 眼寒한다고 하였다(『素問·風論』¹²⁾). 『내경』에서는 “眼系”와 “目系”를 混

用하였다. 임상에서 위급한 증후 가운데 하나인 “戴眼”을 자주 언급하였는데, 이는 足太陽經의 經氣가 終하거나 絶하거나 부족한 증상에 주로 나타난다.(『素問·診要經終論』¹³⁾、『素問·三部九候論』¹⁴⁾、『靈樞·終始』¹⁶⁾). 그리고 癰疽에서 흰자위가(白眼)가 청색을 띠고, 검은자위(黑眼)가 작은 것은 逆證이라 하였다(『靈樞·玉版』¹⁷⁾).

2) 目

‘目’字는 『내경』의 182개의 조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內經』에서 目은 “하늘에 日月이 있듯이 사람에게서는 두 눈이 있다”(『靈樞·邪客』¹⁸⁾)고 하였으며, 齒面目은 星에 응하고, 五音六律에 상응한다(『素問·鍼解』¹⁹⁾)등과 같이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눈을 해석한 경우(『素問·陰陽應象大論』²⁰⁾)가 있었다.

사물을 보는 눈의 기능은 心의 제어를 받으며(『靈樞·大惑論』²¹⁾), “夫心者, 五藏之專精也, 目者其竅也, 華色者其榮也”(『素問·解精微論』)라 하여 心은 五臟의 精氣를 통솔하는데, 目은 心의 竅이며 색택은 心의 외재적인 표현이라 하였으며, “심者, 五藏六府之主也, 目者, 宗脈之所聚也”(『靈樞·口問』), “目者, 五藏六府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靈樞·大惑論』)라 하였는데 일

7)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窠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 裹攝筋骨血氣之精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8)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也, 目者, 心使也, 心者, 神之捨也, 故神精亂而不轉, 卒然見非常處, 精神魂魄, 散不相得, 故曰惑也.”

9) “足太陽有通項入于腦者, 正屬目本, 名曰眼系, 頭目苦痛取之, 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陰蹻、陽蹻、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眦.”

10) “岐伯曰 胃氣上注于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 上走空竅, 循眼系, 入絡腦, 出頰, 下客主人, 循牙車, 合陽明, 并下人迎, 此胃氣別走于陽明者也.”

11) “故邪中於項, 因逢其身之虛, 其入深, 則隨眼系以入於腦, 入於腦則腦轉, 腦轉則引目系急, 目系急則目眩以轉矣.”

12) “風氣循風府而上, 則爲腦風, 風入係頭, 則爲目風眼寒, 飲酒中風, 則爲漏風, 入房汗出中風, 則爲內風, 新沐中風, 則爲首風, 久風入中, 則爲腸風飧泄, 外在

廢理, 則爲泄風.”

13) “岐伯曰 太陽之脈, 其終也, 戴眼反折瘈瘲, 其色白, 絕汗乃出, 出則死矣.”

14) “足太陽氣絕者, 其足不可屈伸, 死必戴眼.”

15) “瞳子高者, 太陽不足, 戴眼者, 太陽已絕, 此決死生之要, 不可不察也.”

16) “太陽之脈, 其終也, 戴眼, 反折, 瘈瘲, 其色白, 絕皮乃絕汗, 絕汗則終矣.”

17) “岐伯曰 以爲傷者, 其白眼青黑, 眼小, 是一逆也, 內藥而嘔者, 是三逆也, 腹痛渴甚, 是二逆也, 肩項中不便, 是四逆也, 音嘶色脫, 是五逆也.”

18)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19) “人皮應天, 人肉應地, 人脈應人, 人筋應時, 人聲應音, 人陰陽合氣應律, 人齒面目應星, 人出入氣應風, 人九竅三百六十五絡應野.”

20)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21) “目者, 心之使也”

반적으로 心이 주관하는 神明의 활동을 目을 통하여 발현되고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五藏六府之精氣, 皆上注於目而爲之精.”(『靈樞·大惑論』), “五藏六府之津液, 盡上滲于目”(『靈樞·五癯津液別』)이라 하여 인체의 모든 精氣津液이 目으로 집중된다고 하여 인체에서 다른 어떤 器官보다도 우위에 자리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내경』에서는 유독 “耳目聰明”을 강조하였다(『素問·生氣通天論』²²⁾、『素問·陰陽應象大論』²³⁾(24)25)、『靈樞·終始』²⁶⁾).

五臟에 따른 배속관계(『素問·五藏生成』²⁷⁾에서 “肝氣通于目”(『靈樞·脈度』), “目者, 肝之官也”(『靈樞·五閱五使』)라 하여 肝과 연계시켰고, 五行의 배속에서 東方一木一風一肝一目(『素問·金匱真言論』²⁸⁾、『素問·陰陽應象大論』²⁹⁾、『素問·五常政大論』³⁰⁾)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肝은 將軍과 같이 目으로 竅를 열므로 이것으로 하여금 외부에서 肝의 상태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肝의 扨

扨함을 알려면 눈의 밝기를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靈樞·師傳』³¹⁾). 面部와 全身의 類比관계에서 目內眥上과 膺乳를 연계시키기도 하였다(『靈樞·五色』³²⁾).

目과 經絡과의 관계에서는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靈樞·邪氣藏府病形』), “諸脈者皆屬於目”(『素問·五藏生成』)이라 하여 모든 맥의 기혈이 目에 연락되어 있다고 하였다. 12경맥에서 手少陰之脈은 “起於心中 …… 繫目系”³³⁾, 手太陽之脈은 “起於小指之端 …… 其支者 …… 至目銳眥 …… 其支者 …… 至目內眥”³⁴⁾, 足太陽之脈은 “起於目內眥 …… ”³⁵⁾, 手少陽之脈은 “起于小指次指之端 …… 至目銳眥”³⁶⁾, 足少陽之脈은 “起于目銳眥 …… ”³⁷⁾, 족소양과 踰음맥은 “徇蒙招尤, 目冥耳聾, 下實上虛, 過在足少陽厥陰, 甚則入肝.”(『素問·五藏生成』), 足厥陰之脈은 “起于大指叢毛之際 …… 其支者, 從目系下頰裏”³⁸⁾하고, 任脈은 “起於

22) “是以聖人陳陰陽, 筋脈和同, 骨髓堅固, 氣血皆從, 如是則內外調和, 邪不能害, 耳目聰明, 氣立如故.”
 23) “智者察同, 愚者察異, 愚者不足, 智者有餘, 有餘則耳目聰明, 身體輕強, 老者復壯, 壯者益治.”
 24) “岐伯曰 東方陽也, 陽者其精并於上, 并於上, 則上明而下虛, 故使耳目聰明, 而手足不便也. 西方陰也, 陰者其精并於下, 并於下, 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 而手足便也.”
 25) “年五十, 體重, 耳目不聰明矣.”
 26) “凡刺之道, 氣調而止, 補陰寫陽, 音氣益彰, 耳目聰明, 反此者, 血氣不行.”
 27) “夫脈之小大滑澁浮沈, 可以指別, 五藏之象, 可以類推, 五藏相音, 可以意識, 五色微診, 可以目察.”
 28)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29) “岐伯對曰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藏爲肝, 在色爲蒼,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竅爲目, 在味爲酸, 在志爲怒.”
 30) “其氣端, 其性隨, 其用曲直, 其化生榮, 其類草木, 其政發散, 其候溫和, 其令風, 其藏肝, 肝其畏清, 其主目, 其穀麻, 其果李, 其實棗, 其應春, 其蟲毛, 其畜犬, 其色蒼, 其養筋, 其病裏急支滿, 其味酸, 其音角, 其物中堅, 其數八.”

31) “岐伯曰 肝者, 主爲將, 使之候外, 慾知堅固, 視目小大.”
 32) “黃帝曰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闕中者, 肺也, 下極者, 心也, 直下者, 肝也, 肝左者, 膽也, 下者, 脾也, 方上者, 胃也, 中央者, 大腸也, 挾大腸者, 腎也, 當腎者, 膺也, 面王以上者, 小腸也, 面王以下者, 膀胱子處也, 顴者, 肩也, 顴後者, 臂也, 臂下者, 手也, 目內眥上者, 膺乳也, 挾繩而上者, 背也, 循牙車以下者, 股也, 中央者, 膝也, 膝以下者, 脛也, 當脛以下者, 足也, 巨分者, 股裏也, 巨屈者, 膝腋也.”
 33)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出屬心系, 下膈, 絡小腸, 其支者, 從心系, 上挾咽, 繫目系.”(『靈樞·經脈』)
 34) “小腸手太陽之脈, 其於小指之端 …… 其支者, 從缺盆循頰上頰, 至目銳眥, 却入耳中, 其支者, 別頰上頰, 抵鼻, 至目內眥, 斜絡於頰.”(『靈樞·經脈』)
 35) “膀胱足太陽之脈, 起于目內眥, 上額, 交頰.”(『靈樞·經脈』)
 36)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過客主人前, 交頰, 至目銳眥.”(『靈樞·經脈』)
 37) “膽足少陽之脈, 起于目銳眥, 上抵頭角, 下耳後, 循頰, 行手少陽之前, 至肩上, 卻交出手少陽之後, 入缺盆,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眥後.”(『靈樞·經脈』)
 38) “肝足厥陰之脈, 起于大指叢毛之際, 上循足跗上廉, 去內踝一寸, 上踝八寸, 交出太陰之後, 上咽內廉, 循

中極之下 …… 循面入目³⁹⁾, 督脈者是 “起於少腹 …… 與太陽起於目內眥 …… 其少腹直上者 …… 上繫兩目之下中央⁴⁰⁾하며, 15絡脈에서 手少陰之別이 “ …… 屬目系⁴¹⁾”하고, 經別에서는 足少陽之正은 “ …… 繫目系⁴²⁾”, 足陽明之正은 “ …… 還繫目系⁴³⁾”, 手少陰之正은 “ …… 合目內眥⁴⁴⁾”하며, 蹻脈은 “從足至目⁴⁵⁾”한다.

經筋에서 足太陽之筋은 “起于足小指 …… 其支者, 爲目上綱⁴⁶⁾”, 足少陽之筋은 “起于小指次指 …… 支者, 結于目眥爲外維⁴⁷⁾”, 手太陽之筋은 “起

股陰, 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挾胃, 屬肝, 絡膽, 上貫膈, 布脊肋, 循喉嚨之後, 上入頰頰, 連目系, 上出頰, 與督脈會于頰, 其支者, 從目系下頰裏, 環睛內.”(『靈樞·經脈』)

39) “任脈者, 起於中極之下, 以上毛際, 循腹裏, 上關元, 至咽喉, 上頰循面入目.”(『素問·骨空論』)

40) “督脈者, 起於少腹, 以下骨中央, 女子入繫廷孔, 其孔, 溺孔之端也, 其絡循陰器, 合篡間, 繞篡後, 別繞臀至少陰, 與巨陽中絡者合, 少陰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於目內眥, 上額交頰, 上入絡腦, 還出別下頰, 循肩膊內, 俠脊抵腰中, 入循背絡腎.”(『素問·骨空論』)

41) “手少陰之別, 名曰通里, 去腕一寸半, 別而上行, 循經入于心中, 繫舌本, 屬目系.”(『靈樞·經脈』)

42) “足少陽之正, 繞腓入毛際, 合於厥陰, 別者, 入季脇之間, 循胸裏屬膽, 散之, 上肝, 貫心以上挾咽, 出頰頰中, 散於面, 繫目系, 合少陽於外眥也.”(『靈樞·經別』)

43) “足陽明之正, 上至脾, 入于腹裏, 屬胃, 散之脾, 上通于心, 上循咽出于口, 上頰頰, 還繫目系, 合于陽明也.”(『靈樞·經別』)

44) “手少陰之正, 別入于淵腋兩筋之間, 屬於心, 上走喉嚨, 出于面, 合目內眥, 此爲四合也.”(『靈樞·經別』)

45) “蹻脈從足至目, 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靈樞·脈度』)

46) “足太陽之筋, 起于足小指, 上結于踝, 邪上結于膝, 其下循足外側, 結于踵, 上循跟, 結于膕, 其別者, 結于踰外, 上膕中內廉, 與膕中并上結于臂, 上挾脊上項, 其支者, 別入結于舌本, 其直者, 結于枕骨, 上頭, 下頰, 結于鼻, 其支者, 爲目上綱, 下結于頰, 其支者, 從腋後外廉, 結于肩髃, 其支者, 入腋下, 上出缺盆, 上結于完骨, 其支者, 出缺盆, 邪上出于頰.”(『靈樞·經筋』)

47) “足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 上結外踝, 上循脛外廉, 結于膝外廉, 其支者, 別起外輔骨, 上走腓, 前者結于伏兔之上, 後者結于尻, 其直者, 上乘少季脅, 上走腋前廉, 繫于膺乳, 結于缺盆, 直者, 上出腋, 貫缺

于小指之上 …… 其支者 …… 上屬目外眥⁴⁸⁾, 手少陽之筋은 “起于小指次指之端 …… 屬目外眥⁴⁹⁾”한다. 標本에서는 “足太陽之本 …… 標在兩絡命門, 命門者, 目也”(『靈樞·衛氣』), 根結에서는 “太陽根于至陰, 結于命門, 命門者, 目也.”(『靈樞·根結』)라 하였다.

『靈樞·衛氣行』篇에서는 衛氣의 運行을 언급하였는데, 三陽經(足太陽·手太陽·足少陽·手少陽·足陽明·手陽明의 순서)이 모두 目에서 아래로 향하여 散行하고, 그리고나서 足心에서 족소음경을 경과 하여 陰(五臟)에 入하고, 다시 腎→心→肺→肝→脾의 순서로 운행한다. 그리고 다시 足少陰經에서 나와서 陰蹻脈을 따라 目으로 회귀한다⁵⁰⁾. 이와 같이 낮에는 陽經을 25周하고 밤에는 陰經을 25周하는데 중심이 되는 곳이 目이다⁵¹⁾.

衛氣의 運行과 睡眠 활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靈樞·大惑論』에서 병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衛氣가 陰分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陽分에 머물게 되는데, 衛氣가 陽分에 머물면 陽

盆, 出太陽之前, 循耳後, 上頰角, 交頰上, 下走頰, 上結于頰, 支者, 結于目眥爲外維, 其病小指次指支轉筋, 引膝外轉筋, 膝不可屈伸, 膕筋急, 前引脾, 後引尻, 即上乘少季脅痛, 上引缺盆膺乳頸, 維筋急, 從左之右, 右目不開, 上過右角, 並蹻脈而行, 左絡于右, 故傷左角, 右足不用, 命曰維筋相交.”(『靈樞·經筋』)

48) “手太陽之筋, 起于小指之上, 結于腕, 上循臂內廉, 結于肘內銳骨之後, 彈之應小指之上, 入結于腋下, 其支者, 後走腋後廉, 上繞肩胛, 循頰出走太陽之前, 結于耳後完骨, 其支者, 入耳中, 直者, 出耳上, 下結于頰, 上屬目外眥.”(『靈樞·經筋』)

49) “手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之端, 結于腕, 上循臂, 結于肘, 上繞膕外廉, 上肩, 走頰, 合手太陽, 其支者, 當曲頰入繫舌本, 其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眥, 上乘頰, 結于角.”(『靈樞·經筋』)

50) “是故平旦陰盡, 陽氣出于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趾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眥下手太陽, 下至手小指之間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足少陽, 注小趾次趾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側, 下至小指之間, 別者以上至耳前, 合於頰脈, 注足陽明以下行, 至跗上, 入五趾之間, 其散者, 從耳下下手陽明, 入大指之間, 入掌中, 其至於足也, 入足心, 出內踝, 下行陰分, 復合於目, 故爲一周.”(『靈樞·衛氣行』)

51) “是故夜行一捨, 人氣行於陰藏一週與十分藏之八, 亦如陽行之二十五週, 而復合於目.”(『靈樞·衛氣行』)

氣가 충만해지고, 陽氣가 충만해지면 陽蹻脈이 盛해진다. 陰分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陰氣가 虛해져 눈을 감지 못한다.”⁵²⁾고 하였다. 그리고 눈이 감겨 물체를 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衛氣가 陰分에 머물면 陽分으로 운행하지 못하는데, 衛氣가 陰分에 머물면 陰氣가 지나치게 盛해지고, 陰氣가 盛해지면 陰蹻脈이 충만해진다. 陽分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陽氣가 虛해져 눈이 감긴다.”⁵³⁾고 하였다. 따라서 “陽氣盛則瞋目, 陰氣盛則瞑目”(『靈樞·寒熱病』)이라 하여 陽은 여는 작용을 주관하고, 陰은 닫는 작용을 주관하며, 이는 蹻脈이 目中에서 交接하기 때문이다.

진단분야에 있어서 예로부터 “察其目”(『靈樞·九鍼十二原』⁵⁴⁾, 『靈樞·小鍼解』⁵⁵⁾)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신명활동이 눈을 통하여 발현된다는 발상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視目之五色, 以知五藏而決死生”(『靈樞·邪客』), “觀其色, 察其目, 以知其散復者, 視其目色, 以知病之存亡也.”(『靈樞·四時氣』)라 하여 눈의 오색을 관찰함으로써 사생을 결단하였다. 구체적으로 “凡相五色之奇脈, 面黃目青, 面黃目赤, 面黃目白, 面黃目黑者, 皆不死也. 面青目赤, 面赤目白, 面青目黑, 面黑目白, 面赤目青, 皆死也”(『素問·五藏生成』), “目赤色者, 病在心, 白在肺, 青在肝, 黃在脾, 黑在腎”(『靈樞·論疾診尺』)이라 하였는데, 이는 오행론을 기계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임상적인 실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診目痛(病), 赤脈從上下者, 太陽病, 從下上者, 陽明病, 從外走內者, 少陽病.”(『靈樞·論疾診尺』)에

52)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 常留於陽, 留於陽則陽氣滿, 陽氣滿則陽蹻盛, 不得入於陰則陰氣虛, 故目不瞑矣.”(『靈樞·大惑論』)

53) “岐伯曰 衛氣留於陰, 不得行於陽, 留於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蹻滿, 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目閉也.”(『靈樞·大惑論』)

54) “觀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 知其邪正.”

55) “觀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者, 言上工知相五色于目, 有知調尺寸小大緩急滑澀, 以言所病也.”

대해서 張介賓은 “足太陽經은 目的 上部에 퍼져 있으므로 赤脈이 위쪽에서 아래로 향하면 太陽經의 병이다. 足陽明胃經은 目的 下部에 퍼져 있으므로 赤脈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면 陽明經의 병이다. 足少陽膽經은 外眼角의 뒷면을 순행하므로 赤脈이 外眼角에서 안쪽으로 향하면 少陽經의 병이다”라 주해하였는데, 眼病의 진행방향을 경맥학설로 설명한 것은 임상적인 응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目과 관련된 증상 가운데 『內經』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目眩暈”、“目瞑”、“目眩”、“目的 浮腫”、“目赤目痛”、“目似脫”、“目黃” 등이 있다.

目眩暈은 눈이 아물거려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다. 원인이 다양한데 대개 肝氣가 虛할 경우(『素問·藏氣法時論』⁵⁶⁾, 陰陽이 內奪할 경우(『素問·鍼解』⁵⁷⁾, 腰痛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素問·刺腰痛』⁵⁸⁾⁵⁹⁾⁶⁰⁾, 『靈樞·雜病』⁶¹⁾), 厥로 인한 요통(『靈樞·雜病』), 運氣論에서 歲水가 不及하거나(『素問·氣交變大論』), 厥陰風木이 過亢할 경우(『素問·刺法論』⁶²⁾), 腎의 經脈에 병이 있을 경우(『靈樞·經脈』⁶³⁾) 등이 해당한다. 또한 腎病의 경우 “目眴眴然”(『素問·刺癧』⁶⁴⁾)한 것도 이러한 증상에 속한다.

56)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 虛則目眩暈無所見, 耳無所聞, 善恐如人將捕之.”

57) “所謂色不能久立, 久坐起則目眩暈無所見者, 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 陰陽內奪, 故目眩暈無所見也. 必正其神者, 慾瞻病人目製其神, 令氣易行也.”

58) “解脈令人腰痛, 痛引肩, 目眩暈然, 時遺洩, 刺解脈, 在膝筋肉分間, 郄外廉之橫脈出血, 血變而止.”

59) “昌陽之脈, 令人腰痛, 痛引膺, 目眩暈然, 甚則反折, 舌捲不能言, 刺內筋爲二疔, 在內踝上大筋前, 太陰後上踝二寸所.”

60) “腰痛俠脊而痛至頭几几然, 目眩暈憊憊, 刺足太陽郄中出血.”

61) “厥, 挾脊而痛至頂, 頭沉沉然, 目眩暈然, 腰脊強, 取足太陽膈中血絡.”

62) “民病痺眩, 手足直而不仁, 兩脇作痛, 滿目眩暈.”

63) “腎足少陰之脈, 起于小指之下, 邪走足心, 出于然谷之下, 循內踝之後 …… 是動則病機不慾食, 面如漆柴, 欬唾則有血, 喝喝而喘, 坐而慾起, 目眩暈如無所見, 心如懸若鐵狀.”

64) “腎癧者, 令人灑灑寒, 腰脊痛宛轉, 大便難, 目眴眴

目瞑의 원인은 足少陽厥陰經의 이상으로 上虛下實할 경우(『素問·五藏生成』), 鼻淵으로 인한 경우(『素問·氣厥論』), 針刺法을 어겨서 생긴 부작용(『素問·四時刺逆從論』), 辰戌之紀、少陰在泉、少陰司天、陽明不退位 등 운기 병리로 인한 것(『素問·六元正紀大論』⁶⁵、『素問·本病論』⁶⁶、『素問·至眞要大論』^{67/68})、經筋病(手太陽之筋)으로 인한 것(『靈樞·經筋』⁶⁹)、鬱熱로 인한 것(『素問·六元正紀大論』⁷⁰) 등이 있다.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는 熱病으로 인한 “目不明”(『靈樞·熱病』⁷¹)、一水(目的精)가 五火(五臟의 陽氣가 亢盛)를 이기지 못하여 눈이 사물을 볼 수 없게 되는 目皆盲(『素問·解精微論』⁷²)이 있다.

치료에 있어서 “目無所見”에 “發瞭”刺法을 쓰고(『靈樞·刺節眞邪』⁷³)、 “耳目不明”에 天牖을 取穴하였다(『靈樞·寒熱病』⁷⁴)、

目眩은 “上氣不足，腦爲之不滿”(『靈樞·口問』⁷⁵)

然，手足寒，刺足太陽少陰。”

- 65) “太陽，太角，太陰，壬辰，壬戌，其運風，其化鳴素啓拆，其變振拉摧拔，其病眩掉目瞑。”
- 66) “民病嘔吐暴注，食飲不下，大便乾燥，四肢不舉，目瞑掉眩。”
- 67) “民病腹中常鳴，氣上衝胸，喘，不能久立，寒熱皮膚痛，目眩齒痛，頰腫，惡寒發熱如瘧，少腹中痛，腹大，蟄蟲不藏。”
- 68) “少陰司天，客勝則軌噎頸項強，肩背脊熱，頭痛少氣，發熱，耳聾目瞑，甚則附腫，血溢瘡瘍，欬喘，主勝則心熱煩躁，甚則脇痛支滿。”
- 69) “其病小指支肘內銳骨後廉痛，循臂陰，入腋下，腋下痛，腋後廉痛，繞肩胛引頸而痛，應耳中鳴痛引頰，目瞑，良久乃得視，頸筋急則爲筋癢頸腫。”
- 70) “其病淋，目瞑目赤，氣鬱於上而熱。”
- 71) “熱病不可刺者有九，一曰，汗不出，大顛發赤噦者死；二曰，泄而腹滿甚者死；三曰，目不明，熱不已者死。”
- 72) “夫一水不勝五火，故目皆盲。”
- 73) “黃帝問于歧伯曰 余聞刺有五節，奈何？歧伯曰 固有五節，一曰振埃，二曰發瞭，三曰去爪，四曰微衣，五曰解惑…… 發瞭者，刺府輸，去府病也；去爪者，刺關節肢絡也。微衣者，盡刺諸陽之奇輸也。解惑者，盡知調陰陽，補寫有餘不足，相傾移也…… 夫發瞭者，耳無所聞，目無所見，夫子乃言刺府輸，去府病，何輸使然？願聞其故。”
- 74) “暴聾氣蒙，耳目不明，取天牖。”

하거나, 脫血이 있거나(『素問·腹中論』⁷⁶)、肝病(『素問·標本病傳論』⁷⁷)이 있거나 “風痺淫瀦”이 오래 되거나(『靈樞·厥病』⁷⁸)、 운기 병리에서 “伏之化鬱”(寅申之歲、辰戌之歲)로 인하거나(『素問·刺法論』^{79/80})、 邪氣가 腦에 入하여 目系가 急해져서(『靈樞·大惑論』)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치료에 대해서는 “目眩頭傾，補足外踝下留之”(『靈樞·口問』)라 하였다.

目轉은 厥陰司天和(『素問·五常政大論』⁸¹)、 厥陰不遷正(『素問·刺法論』⁸²)으로 병리를 설명하였으며, “五陰氣俱絕”(『靈樞·經脈』)할 경우에는 ‘目系轉’이라 표현하였다.

目的 질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目赤目痛이다. 目赤과 目痛의 발병기전에 대하여 『내경』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邪氣가 蹠脈에 침입하거나(『素問·繆刺論』⁸³)、 少陽이 有餘하면(『素問·四時刺逆從論』⁸⁴) 目痛을 유발한다. 운기 이론에서 歲金太過(『素問·氣交變大論』⁸⁵)、 木太過、陽明司天(『素問·五常政大論』⁸⁶)、 少陽司

- 75) “故上氣不足，腦爲之不滿，耳爲之苦鳴，頭爲之苦傾，目爲之眩，中氣不足，洩便爲之變，腸爲之苦鳴，下氣不足，則乃爲痿厥心惋，補足外踝下留之。”
- 76) “帝曰 有病腦支滿者，妨於食，病至則先聞腥臊臭，出清液，先唾血，四支清，目眩，時時前後血，病名爲何，何以得之？”
- 77) “肝病頭目眩，脇支滿，三日體重身痛，五日而脹，三日腰脊少腹痛，脛痠，三日不已死。”
- 78) “風痺淫瀦，病不可已者，足如履冰，時如入涿中，股脛淫瀦，煩心頭痛，時嘔時惋，眩已汗出，久則目眩，悲以喜恐，短氣，不出三年死也。”
- 79) “久而不降，伏之化鬱，寒勝復熱，赤風化疫，民病面赤心煩，頭痛目眩也。”
- 80) “久而不降，伏之化鬱，冷氣復熱，赤風化疫，民病面赤心煩頭痛目眩也。”
- 81) “厥陰司天，風氣下臨，脾氣上從，而土且隆，黃起水迺昏，土用革，體重肌肉萎，食減口爽，風行太虛，雲物搖動，目轉耳鳴。”
- 82) “厥陰不遷正，即風暄不時，花卉萎瘁，民病淋瀝，目系轉，轉筋喜怒，小便赤。”
- 83) “邪客於足陽蹠之脈，令人目痛從內眥始。”
- 84) “少陽有餘筋筋痺臨滿，不足病肝痺，滑則病肝風疝，溢則病積，時筋急目痛。”
- 85) “歲金太過，燥氣流行，肝木受邪，民病兩脇下少腹痛，目赤痛眦瘍，耳無所聞。”

天、少陰司天、火鬱之發(『素問·六元正紀大論』87)88)89)90)91), 少陽之勝(『素問·至真要大論』)92) 등의 병리를 설명할 때 “目赤”이라 하였다.

癩疾이 처음 발생할 때 目赤(『靈樞·癩狂』)93)한다. 手少陽三焦、膽足少陽脈의 경락 병증에서 目銳眦痛한다고 하였고(『靈樞·經脈』)94)95), 熱病으로 인하여 目癢脈痛하며(『靈樞·熱病』)96), 目中赤痛에는 陰蹻脈을 取하라고 하였다(『靈樞·熱病』)97).

이와 대조적으로 眼寒한 증상을 언급하였는데 頭系를 통하여 風이 들어가면 目風眼寒한다고 하였다(『素問·風論』)98).

- 86) “其穀麥苳，其畜羊豕，其果杏栗，其色赤白玄，其味苦辛鹹，其象夏，其經手少陰太陽，手厥陰少陽，其藏心肺，其蟲羽鱗，其物脈濡，其病笑疔，瘡瘍血流，狂妄目赤。”
- 87) “初之氣，地氣遷，風勝迺搖，寒迺去，候迺大溫，草木早榮，寒來不殺，溫病迺起，其病氣怫於上，血溢目赤，欬逆頭痛，血崩，腦滿，膚腠中痛。”
- 88) “三之氣，天政布，炎暑至，少陽臨上，雨乃漚，民病熱中，聾眼，血溢，膿瘡，咳，嘔，衄，吐，渴，噎欠，喉痺，目赤，善暴死。”
- 89) “水火寒熱持於氣交而為病始也，熱病生於上，清病生於下，寒熱凌犯而爭於中，民病欬喘，血溢，血泄，衄，嚏，目赤眦癢，寒厥入胃，心痛腰痛，腹大噎乾，腫上。”
- 90) “其病淋，目瞑目赤，氣鬱於上而熱，三之氣，天政布，大火行，庶類蕃鮮，寒氣時至，民病氣厥心痛，寒熱更作，欬喘目赤。”
- 91) “故民病少氣，瘡瘍癰腫，脇腹胸背，面首四支，頰頰腫脹，瘍疔嘔逆，瘰癧骨痛，筋迺有動，注下溫瘧，腹中暴痛，血溢流注，精液迺少，目赤心熱，甚則昏悶懊，善暴死。”
- 92) “少陽之勝，熱客於胃，煩心，心痛，目赤，慾嘔，嘔酸，善飢，耳痛，溺赤，善驚，譫妄，暴熱消燼，萋萎水涸，介蟲乃屈。”
- 93) “目眦外決于面者，為銳眦，在內近鼻者為內眦，上為外眦，下為內眦，癩疾始生，先不樂，頭重痛，視舉目赤，甚作極已而煩心，候之于額，取手太陽陽明太陰，血變而止。”
- 94) “是主氣所生病者，汗出，目銳眦痛，頰痛，耳後，肩，臑，肘，臂，外皆痛，小指次指不用。”
- 95) “是主骨所生病者，頭痛，頰痛，目銳眦痛，缺盆中腫痛，腋下腫，馬刀俠癭，汗出振寒，瘧，胸脅肋髀膝外至脛絕骨外踝前及諸節皆痛，小指次指不用。”
- 96) “熱病頭痛，顛顛，目熱，脈痛，善衄，厥熱病也，取之以第三鍼，視有餘不足，寒熱痔。”
- 97) “目中赤痛，從內眦始，取之陰蹻。”
- 98) “風氣循風府而上，則為腦風，風入係頭，則為目風眼

눈이 빠질 것 같은 증상(目似脫)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운기 병리에서 太陰在泉、太陽之勝(目如脫)의 병리를 설명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하였고(『素問·至真要大論』)99)100), 경맥 병후에서 족태 양맥의 병증에서도 나타난다(『靈樞·經脈』)101).

인체에서 다양한 부위에 浮腫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개 눈꺼풀이 붓는 것을 검하게 된다. 腹部(至陰)에 水氣가 있을 경우 水는 陰이고 目下도 陰이기 때문에 상응하여 目下가 붓는다고 하였고, 風水病일 때도 目下에 부종이 발생하고, 邪氣가 위로 肺에 침입하면 먼저 目下에 가벼운 부종이 나타난다(『素問·評熱病論』)102)103)104). 운기 이론에서 陽明司天의 병증에서 面目浮腫한다고 하였다(『素問·六元正紀大論』)105). 눈꺼풀에 부종이 생기면 대개 頸脈도 함께 動한다고 하였다(『素問·平人氣象論』)106), 『靈樞·水脹』)107), 『靈樞·論疾診尺』)108).

- 寒，飲酒中風，則為漏風，入房汗出中風，則為內風，新沐中風，則為首風，久風入中，則為腸風飧泄，外在腠理，則為泄風。”
- 99) “歲太陰在泉，草乃早榮，濕淫所勝，則埃昏鬱谷，黃反見黑，至陰之交，民病飲積，心痛，耳聾，渾渾痺痺，噎腫喉痺，陰病見血，少腹痛腫，不得小便，病衝頭痛，目似脫，項似拔，腰似折，髀不可以回，腦如結，腦如別。”
- 100) “太陽之勝，凝凜且至，非時水冰，羽乃後化，痔瘕發，寒厥入胃則內生心痛，陰中乃瘍，隱曲不利，互引陰股，肌肉拘苛，血脈凝泣，絡滿色變，或為血泄，皮膚否腫，腹滿食減，熱反上行，頭項凶頂腦戶中痛，目如脫，寒入下焦，傳為濡瀉。”
- 101) “膀胱足太陽之脈，起于目內眦，上額，交頰……是動則病衝頭痛，目似脫，項如拔，脊痛，腰似折，髀不可以曲，腦如結，腦如裂，是為蹠厥。”
- 102) “岐伯曰 水者陰也，目下亦陰也，腹者至陰之所居，故水在腹者，必使目下腫也。”
- 103) “岐伯曰 至必少氣時熱，時熱從胸背至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小便黃，目下腫，腹中鳴，身重難以行，月事不來，煩而不能食，不能正偃，正偃則欬，病名曰風水，論在刺法中。”
- 104) “小便黃者，少腹中有熱也，不能正偃者，胃中不和也，正偃則欬甚，上迫肺也，諸有水氣者，微腫先見於目下也。”
- 105) “陽明司天之政，氣化運行後天，天氣急，地氣明……初之氣，地氣遷，陰始凝，氣始肅，水乃冰，寒雨化，其病中熱脹，面目浮腫，善眠，衄衄，噎乾，嘔，小便黃赤，甚則淋。”

‘其膽乃橫’하면 눈 아래의 下眼瞼 부위가 붓는다고 하였다(『靈樞·師傳』¹⁰⁹).

붓는 것과는 반대로 눈자위가 함몰되는 것도 있는데, 眞藏脈이 나타나서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目匡陷’, ‘目內陷’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素問·玉機眞藏論』¹¹⁰, 『素問·三部九候論』¹¹¹).

눈의 색깔 변화에 대해서는 黃疸와 관련하여 “目黃者曰黃疸”(『素問·平人氣象論』)이라 한 것이 대표적이며, 그밖에 手陽明脈、手少陰脈、手太陽脈、足太陽脈、厥陰心包脈의 경맥 병후에서 ‘目黃’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靈樞·經筋』), 風氣가 腸胃로 들어가 氣가 外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며(『素問·風論』¹¹²), 운기 병리에서 太陽司天할 경우 面赤目黃한다고 하였다(『素問·至眞要大論』¹¹³).

眼瞼運動의 이상증후에 대해서는 經筋病에서 많이 언급하였다. “太陽爲目上綱, 陽明爲目下綱”이라 하였고(『靈樞·經筋』¹¹⁴), 足少陽之筋의 支筋

은 눈 바깥쪽 모서리에 이어져 눈의 바깥쪽을 둘러싸는데, 좌의 경근이 서로 교차하여 面部로 올라가므로 左側에서 右側으로 이어진 筋에 경련이 발생하면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다고 하였고, 足陽明之筋에 병변이 발생하면 目不合한다고 하였고, 足之陽明, 手之太陽의 筋이 급해지면 口眼喎斜(口目爲喎)가 나타난다고 하였다(『靈樞·經筋』¹¹⁵). 經脈死證에서 陽明이 終하면 입과 눈이 일그러지고(口目動作)(『素問·診要經終論』¹¹⁶), 『靈樞·終始』¹¹⁷), 운기 병리에서 少陽之復에 눈꺼풀에 경련(目乃瞶)이 나타난다고 하였다(『素問·至眞要大論』¹¹⁸).

눈물이 나는 것에 대하여 『내경』에서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시켰다. 즉 “水의 精은 志이고, 火의 精은 神인데, 水와 火가 交感하면 神과 志가 모두 슬퍼지므로 눈물이 나온다. 그러므로 속담에 ‘心悲는 志悲이다’라 하였다. 腎志와 心精은 모두 눈에 모인다.”고 하였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神이 감동하지 않은 것이다. 神이 감동하지 않으면 志가 슬퍼하지 않아 腎志와 心志가 서로 교감할 수 없으니 눈물이 어찌 흘러나올 수 있으리오? 대저 志가 슬퍼하는 것은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무치는 것이 있으면 울결한 氣가 가슴에서 치솟으며, 氣가 치솟으면 腎志는 눈에서 떠나는데 눈을 떠나면 神이 精을 지킬 수 없다. 만일 精과 神이 모두 눈에서 떠나면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106) “頸脈動喘疾欬, 曰水. 目微腫, 如臥蠶起之狀, 曰水.”

107) “岐伯答曰 水始起也, 目窠上微腫, 如新臥起之狀, 其頸脈動, 時欬, 陰股間寒, 足脛腫, 腹乃大, 其水已成矣.”

108) “視人之目窠上微腫, 如新臥起狀, 其頸脈動, 時欬, 按其手足上, 窅而不起者, 風水膚脹也.”

109) “目下果大, 其膽乃橫.”

110)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腹內痛, 心中不便, 肩項身熱, 破胭脫肉, 目匡陷, 眞藏見, 目不見人, 立死, 其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

111) “岐伯曰 形盛脈細, 少氣不足以息者危, 形瘦脈大, 胸中多氣者死, 形氣相得者生, 參伍不調者病, 三部九候皆相失者死, 上下左右之脈相應, 如參春者病甚, 上下左右相失, 不可數者死, 中部之候雖獨調, 與衆藏相失者死, 中部之候相減者死, 目內陷者死.”

112) “風氣與陽明入胃, 循脈而上至目內眦, 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 則爲熱中而目黃, 人瘦則外泄而寒, 則爲寒中而泣出.”

113) “太陽司天, 寒淫所勝, 則寒氣反至, 水且冰 …… 胸腹滿, 手熱肘攣掖腫, 心澹澹大動, 胸脇胃脘不安, 面赤目黃, 善噦噎乾, 甚則色灰, 渴而慾飲.”

114) “其直者, 上循肝, 結于缺, 其支者, 結于外輔骨, 合少陽, 其直者, 上循伏兔, 上結于髀, 聚于陰器, 上腹而布, 至缺盆而結, 上頸, 上挾口, 合于頰, 下結于鼻, 上合于太陽, 太陽爲目上綱, 陽明爲目下綱.”

115) “其病足中指支脛轉筋, 脚跳堅, 伏兔轉筋, 髀前腫, 癩疽, 腹筋急, 引缺盆及頰, 卒口僻, 急者, 目不合, 熱則筋縱, 目不開.”

116) “少陽終者, 耳聾百節皆縱, 目瞶絕系, 絕系一日半死, 其死也, 色先青白, 乃死矣. 陽明終者, 口目動作, 善驚妄言, 色黃, 其上下經盛, 不仁則終矣.”

117) “陽明終者, 口目動作, 喜驚, 妄言, 色黃, 其上下之經盛而不行, 則終矣.”

118) “少陽之復, 大熱將至, 枯燥燔熱, 介蟲乃耗, 驚瘵欬衄, 心熱煩燥, 便數憎風, 厥氣上行, 面如浮埃, 目乃開, 火氣內發, 上爲口糜, 嘔逆, 血溢血泄, 發而爲癩, 惡寒鼓慄, 寒極反熱, 噎絡焦槁, 渴引水漿, 色變黃赤, 少氣脈萎, 化而爲水, 傳爲附腫, 甚則入肺, 欬而血泄, 尺澤絕, 死不治.”

“風을 만나면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대저 風邪가 눈에 침입하면(風之中目) 陽氣는 내부의 精을 지키는데, 이렇게 되면 火氣가 눈을 자극(燔目)하기 때문에 風을 만나면 눈물이 난다”고 하였다(『素問·解精微論』119)120)121)122).

잠을 자고 깨는 기전에 대해 陽氣가 다하고 陰氣가 盛하면 잠을 자게 되고(目瞑), 陰氣가 다하고 양기가 성해지면 깬다고 하였으며(『靈樞·口問』123), 병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기가 음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陽分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위기가 양분에 머물면 양기가 충만해지고, 양기가 충만해지면 양교맥이 성해진다. 위기가 음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음기가 허해지므로 잠을 이룰 수 없게된다(目不得瞑)(『靈樞·大惑論』124)고 한 것처럼 대부분 음양의 성쇠로써 설명을 한 경우(『靈樞·邪客』125)가 많았다.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에 대해 氣 또는 血脫하면 目不明한다고 하였고(『素問·四時刺逆從論』126), 『靈樞·決氣』127), 髓海가 부족하면 目無所見하며(『

靈樞·海論』128), 나이가 50이 넘으면 肝氣가 衰하기 시작하고 膽汁이 없어지기 시작하여 目始不明하게 된다(『靈樞·天年』129)고 하였으며, 熱(『素問·熱論』130), 『素問·氣厥論』131), 臟腑疾患(『素問·風論』132), 『靈樞·熱病』133)134)고 기재하였으며, 또한 운기 병변에 의하여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素問·至真要大論』135), 『素問·六元正紀大論』136), 『素問·刺法論』137). 또한 衛氣의 병변으로도 시각장애가 일어난다(『靈樞·大惑論』138)고 하였다. 그리고 눈물이나 콧물 등이 흐르는 통로가 열리면 눈물이 나고,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진액이 고갈되며, 진액이 고갈되면 정기가 공규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정기가 공규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면 目無所見한다(『靈樞·口問』139)고 하

119) “夫水之精爲志，火之精爲神，水火相感，神志俱悲，是以目之水生也。故諺言曰 心悲名曰志悲，志與心精，共淩於目也。”
 120) “不泣者，神不慈也。神不慈則志不悲，陰陽相持，泣安能獨來？夫志悲者悅，悅則衝陰，衝陰則志去目，志去則神不守精，精神去目，涕泣出也。且子獨不誦不念夫經言乎？厥則目無所見。”
 121) “夫一水不勝五火，故目昏盲。是以衝風，泣下而不止。”
 122) “夫風之中目也，陽氣內守於精，是火氣燔目，故見風則泣下也。”
 123) “陽氣盡，陰氣盛，則目瞑，陰氣盡而陽氣盛，則寤矣。”
 124)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常留於陽，留於陽則陽氣滿，陽氣滿則陽蹻盛，不得入於陰則陰氣虛，故目不瞑矣。”
 125) “黃帝問於伯高曰 夫邪氣之客人也，或令人目不瞑不臥出者，何氣使然？行於陽則陽氣盛，陽氣盛則陽蹻陷，不得入於陰，陰虛，故目不瞑。”
 126) “冬刺經脈，血氣皆脫，令人目不明，冬刺絡脈，內氣外泄，留爲大痺，冬刺肌肉，陽氣竭絕，令人善忘。”
 127) “岐伯曰 精脫者，耳聾，氣脫者，目不明，津脫者，腠理開，汗大泄，液脫者，骨屬屈伸不利，色灰，腦髓消，脛痠，耳數鳴，血脫者，色白，沃然不澤，其脈空虛，此其候也。”

128)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暈，目無所見，懈怠安臥。”
 129) “五十歲，肝氣始衰，肝葉始薄，膽汁始減，目始不明。”
 130) “二日，陽明受之，陽明主肉，其脈俠鼻，絡於目，故身熱目疼而鼻乾，不得臥也。”
 131) “膽移熱於腦，則辛煩鼻淵，鼻淵者，濁涕下不止也，傳爲衄衄目。”
 132) “肝風之狀，多汗惡風，善悲，色微蒼，噦乾善怒，時憎女子，診在目下，其色青。”
 133) “熱病噦乾多飲，善驚，臥不能起，取之膚肉，以第六鍼，五十九，目眇青，索肉于脾，不得索之木，木者肝也，熱病面青腦痛，手足躁，取之筋間，以第四鍼于四逆，筋澁目浸，索筋于肝，不得索之金，金者肺也。”
 134) “熱病不可刺者有九，一曰，汗不出，大額發赤暈者死，二曰，泄而腹滿甚者死，三曰，目不明，熱不已者死，四曰，老人嬰兒，熱而腹滿者死，五曰，汗不出，嘔下血者死，六曰，舌本爛，熱不已者死，七曰，欬而衄，汗不出，出不至足者死，八曰，髓熱者死，九曰，熱而逆者死。”
 135) “陽明司天，燥淫所勝，則木迺晚榮，草迺晚生，筋骨內變……心脇暴痛，不可反側，噦乾，面塵腰痛，丈夫癩疝，婦人少腹痛，目眇眇，癢瘡癩癧。”
 136) “故民病胃脘當心而痛，上支兩脇，噦咽不通，食飲不下，甚則耳鳴眩轉，目不識人，善暴僵僕。”
 137) “民病溫疫癘發風生，民病皆肢節痛，頭目痛，伏熱內煩，咽乾引飲。”
 138) “黃帝曰 病目而不得視者，何氣使然？岐伯曰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蹻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
 139) “故上液之道開則泣，泣不止則液竭，液竭則精不灌，

었다.

눈의 外觀으로 성격을 규정하였는데(『靈樞·論勇』¹⁴⁰141), 피부가 얇고 눈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고 움푹 들어가 있으면(目堅固以深) 성격이 억세고 자주 화를 낸다(『靈樞·五變』¹⁴²). 勇士는 눈빛이 깊고 확고하며(目深以固), 怯士는 눈은 크나 깊고 확고하지 않다(目大而而不減)고 하였다(『靈樞·論勇』¹⁴³).

이상의 내용 외에도 『내경』에는 ‘目’字가 생리(『素問·三部九候論』¹⁴⁴), 『素問·寶命全形論』¹⁴⁵), 『素問·鍼解』¹⁴⁶147), 『靈樞·五癯津液別』¹⁴⁸149), 『靈樞·官能』¹⁵⁰), 병리(『素問·上古天真論』¹⁵¹), 『素問·

精不灌則目無所見矣, 故命曰奪精.”

- 140) “少俞曰 勇士者, 目深以固, 長衝直歌, 三焦理橫, 其心端直, 其肝大以堅, 其膽滿以傍, 怒則氣盛而張, 肝舉而膽橫, 皆裂而目歌, 毛起而面蒼, 此勇士之由然者也.”
- 141) “少俞曰 怯士者, 目大而減, 陰陽相失, 其焦理縱, 口口軒短而小, 肝系緩, 其膽不滿而縱, 腸胃挺, 脊下空, 雖方大怒, 氣不能滿其胸, 肝肺雖舉, 氣衰復下, 故不能久怒, 此怯士之所由然者也.”
- 142) “少俞答曰 此人薄皮膚, 而目堅固以深者, 長衝直歌, 其心剛, 剛則多怒, 怒則氣上逆, 胸中畜積, 血氣逆留, 腠皮充肌, 血脈不行, 轉而爲熱, 熱則消肌膚, 故爲消癯.”
- 143) “少俞曰 勇士者, 目深以固, 長衝直歌, 三焦理橫, 其心端直, 其肝大以堅, 其膽滿以傍, 怒則氣盛而胸張, 肝舉而膽橫, 皆裂而目歌, 毛起而面蒼, 此勇士之由然者也.”
- 144) “天以候頭角之氣, 地以候口齒之氣, 人以候耳目之氣.”
- 145) “能經天地陰陽之化者, 不失四時, 知十二節之理者, 聖智不能欺也, 能存八動之變, 五勝更立, 能達虛實之數者, 獨出獨入, 吐吟至微, 秋毫在目.”
- 146) “人心意應八風, 人氣應八風, 人髮齒耳目五聲應五音六律, 人陰陽脈血氣應地, 人肝目應之九.”
- 147) “人皮應天, 人肉應地, 人脈應人, 人筋應時, 人聲應音, 人陰陽合氣應律, 人齒而目應星, 人出入氣應風, 人九竅三百六十五絡應野.”
- 148) “五藏六府, 心爲之主, 耳爲之聽, 目爲之候, 肺爲之相, 肝爲之將, 脾胃之衛, 腎爲之主外.”
- 149) “故五藏六府之津液, 盡上滲于目, 心悲氣并則心系急, 心系急則肺舉, 肺舉則液上溢.”
- 150) “黃帝曰 明目者, 可使視色.”
- 151) “是以嗜慾不能勞其目, 淫邪不能惑其心, 愚智賢不肖, 不懼於物, 故合於道.”

生氣通天論』¹⁵²), 『素問·湯液醪醴論』¹⁵³), 『素問·氣交變大論』¹⁵⁴155), 『素問·五藏政大論』¹⁵⁶157), 『靈樞·邪氣藏府病形』¹⁵⁸), 『靈樞·癲狂』¹⁵⁹), 경락(『靈樞·經脈』¹⁶⁰161)162)163), 『靈樞·經筋』¹⁶⁴165)

- 152)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洩瀉乎若壞都, 汨汨乎不可止.”
- 153) “今良工皆得其法, 守其數, 親戚兄弟遠近音聲日聞於耳, 五色日見於目而病不愈者, 亦何暇不早乎?”
- 154) “歲金太過, 燥氣流行, 肝木受邪, 民病兩脇下少腹痛, 目赤痛眦瘍, 耳無所聞.”
- 155) “復則大風暴發, 草偃木零, 生長不鮮, 面色時變, 筋骨併闕, 肉瞤心驚, 目視眩眩, 物昧墜, 肌肉肉發, 氣并鬲中, 痛於心腹.”
- 156) “漉滄數至, 木伐草萎, 脇痛目赤, 掉振鼓慄, 筋痿不能久立.”
- 157) “風行太虛, 雲物搖動, 目轉耳鳴.”
- 158) “滑甚爲癰癧, 微滑爲骨痠, 坐不能起, 起則目無所見, 澀甚爲大癰, 微澀爲不月沈痔.”
- 159) “狂, 目妄見, 耳妄聞, 善呼者, 少氣之所生也.”
- 160) “是主津液所生病者, 目黃, 口乾, 眦衄, 喉痺, 肩前脇痛, 大指次指痛不用, 心手少陰之脈, 起于心中, 出屬心系, 下膈, 絡小腸, 其支者, 從心系, 上挾咽, 繫目系.”
- 161) “其支者, 從缺盆循頰, 上頰, 至目銳眦, 卻入耳中, 其支者, 別頰上頰, 抵鼻, 至目內眦, 斜絡于頰.”
- 162) “膀胱足太陽之脈, 起于目內眦, 上頰, 交頰.”
- 163) “三焦手少陽之脈, 起于小指次指之端, 上出兩指之間, 循手表腕, 出臂外兩骨之間, 上貫肘, 循脇外上肩, 而交出足少陽之後, 入缺盆, 布膺中, 散落心包, 下膈循屬三焦, 其支者, 從膺中, 上出缺盆, 上頰, 繫耳後, 直上出耳上角, 以屈下頰至頰,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過客主人前, 交頰至目銳眦.”
- 164) “足太陽之筋, 起于足小指, 上結于踝, 邪上結于膝, 其下循足外側, 結于踵, 上循跟, 結于膕, 其別者, 結于端外, 上膕中內廉, 與膕中并上結于臀, 上挾脊上項, 其支者, 別入結于舌本, 其直者, 結于枕骨, 上頭, 下頰, 結于鼻, 其支者, 爲目上綱, 下結于頰, 其支者, 從腋後外廉, 結于肩髃, 其支者, 入腋下, 上出缺盆, 上結于完骨, 其支者, 出缺盆, 邪上出于頰.”
- 165) “足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 上結外踝, 上循脛外廉, 結于膝外廉, 其支者, 別起外輔骨, 上走脾, 前者結于伏兔之上, 後者結于尻, 其直者, 上乘眇季脅, 上走腋前廉, 繫于膺乳, 結于缺盆, 直者, 上出腋, 貫缺盆, 出太陽之前, 循耳後, 上頰角, 交頰上, 下走頰, 上結于頰, 支者, 結于目眦爲外維, 其病小指次指支轉筋, 引膝外轉筋, 膝不可屈伸, 膕筋急, 前引脾, 後引尻, 即上乘眇季脅痛, 上引缺盆膺乳頸, 維筋急, 從左之右, 右目不開, 上過右角, 竝蹠脈而行, 左絡于右, 故傷左角, 右足不用, 命曰維筋相交.”

166)167)168)、『素問·氣府論』169)170)171)、『素問·骨空論』172)173)174)、『靈樞·終始』175)、『靈樞·營氣』176)、『靈樞·脈度』177)178)、『靈樞·大惑論』179)180)、『靈樞·

- 166) “其直者，上循脊，結于缺。其支者，結于外輔骨，合少陽，其直者，上循伏兪，上結于脾，聚于陰器，上腹而布，至缺盆而結，上頸，上挾口，合于頰，下結于鼻，上合于太陽，太陽為目上綱，陽明為目下綱。”
- 167) “手太陽之筋，起于小指之上，結于腕，上循臂內廉，結于肘內銳骨之後，彈之應小指之上，入結于腋下，其支者，後走腋後廉，上繞肩胛，循頸出走太陽之前，結于耳後完骨，其支者，入耳中，直者，出耳上，下結于頰，上屬目外眥。”
- 168) “手少陽之筋，起于小指次指之端，結于腕，上循臂，結于肘，上繞臑外廉，上肩，走頸，合手太陽，其支者，當曲頰入繫舌本，其支者，上曲牙，循耳前，屬目外眥，上乘頰，結于角。”
- 169) “足少陽脈氣所發者，六十二穴。兩角上各二，直目上髮際內各五，耳前角上各一，耳前角下各一，銳髮下各一，客主人各一，耳後陷中各一，下關各一，耳下牙車之後各一，缺盆各一，掖下三寸，脇下至臑八間各一，髀樞中傍各一，膝以下至小指次指，各六俞。”
- 170) “手太陽脈氣所發者，三十六穴。目內眥各一，目外各一，軌骨下各一，耳郭上各一，耳中各一，巨骨穴各一，曲掖上骨穴各一，柱骨上陷者各一，上天 四寸各一，肩解各一，肩解下三寸各一，肘以下至手小指本，各六俞。”
- 171) “下陰別一，目下各一，下脣一，斷交一。”
- 172) “任脈者，起於中極之下，以上毛際，循腹裏，上關元，至咽喉，上頤循面入目。”
- 173) “督脈者，起於小腹，以下脊中央，女子入繫廷孔，其孔，溺孔之端也，其絡循陰器，合纂間，繞脊後，別繞臂至少陰，與巨陽中絡者合，少陰上股內後廉，貫脊屬腎，與太陽起於目內眥，上額上頂，入絡腦，還出別下項，循肩膊內，俠脊抵腰中，入循脛絡腎。”
- 174) “其少腹直上者，貫臍中央，上貫心，入喉上頤，環唇，上繫兩目之下中央。”
- 175) “少陽終者，耳聾，百節盡縱，目系絕，目系絕一日半則死矣，其死也，色青白乃死。”
- 176) “從脾注心中，循手少陰出腋下臂，注小指，合手太陽，上行乘腋出臍內，注目內眥，上頤下項，合足太陽，循脊下尻，下行注小指之端，循足心注足少陰，上行注腎。”
- 177) “蹻脈從足至目，七尺五寸，二七一丈四尺，二五一尺，合一丈五尺。”
- 178) “岐伯答曰 蹻脈者，少陰之別，起于然骨之後，上內踝之上，直上，循陰股，入陰，上循胸裏，入缺盆，上出人迎之前，入頰，屬目內眥，合于太陽，蹻蹻而上行，氣并相還，則為滯目，氣不榮，則目不合。”
- 179) “岐伯對曰 五藏六府之精氣，皆上注於目而為之精。”
- 180) “故邪中於項，因逢其身之虛，其入深，則隨眼系以

口問』181)、진단(『素問·八正神明論』182)183)、『靈樞·小鍼解』184)185)、『靈樞·刺節真邪』186)、『靈樞·大惑論』187)188)189)、『靈樞·寒熱』190)、『靈樞·五色』191)192)、『靈樞·衛氣失常』193) 등에 관련해 사용된

入於臆，入於腦則腦轉，腦轉則引目系急，目系急則目眩以轉矣。”

- 181) “岐伯曰 腎主為缺，取足少陰，肺主為噦，取手太陰？足少陰，噦者，陰與陽絕，故補足太陽，寫足少陰，振寒者，補諸陽，噦者，補足太陽陽明，噦者，補足太陽眉本，彈，因其所在，補分肉間，泣出，補天柱經俠頸，俠頸者，頭中分也，太息，補手少陰心主，足少陽留之，涎下，補足少陰，耳鳴，補客主人？手大指爪甲上與肉交者，自齧舌，視主病者，則補之，目眩頭傾，補足外踝下留之，痿厥心惋，刺足大指間上二寸留之，一曰足外踝下留之。”
- 182) “岐伯曰 請言形，形乎形，目冥冥，問其所病，索之於經，慧然在前，按之不得，不知其情，故曰形。”
- 183) “岐伯曰 請言神，神乎神，耳不聞，目不明，而志先，慧然獨悟，口弗能言，俱視獨見，適若昏，昭然獨明，若風吹雲，故曰神。”
- 184) “觀其色，察其目，知其散復，一其形，聽其動靜者，言上工知相五色于目，有知調尺寸小大緩急滑澹，以言所病也。”
- 185) “所以察其目者，五藏使五色循明，循明則聲章，聲章者，則言聲與平生異也。”
- 186) “此所謂弗見為之，而無目視，見而取之，神明相得者也。”
- 187) “目者，心使也，心者，神之捨也，故神精亂而不轉。”
- 188)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常留於陽，留於陽則陽氣滿，陽氣滿則陽滿，不得入於陰則陰氣虛，故目不瞑矣。”
- 189)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
- 190) “岐伯曰 反其目視之，其中有赤脈，上下貫瞳子，見一脈，一歲死，見一脈半，一歲半死，見二脈，二歲死，見二脈半，二歲半死，見三脈，三歲而死。”
- 191) “其脈滑大以代而長者，病從外來，目有所見，志有所惡，此陽氣之并也，可變而已。”
- 192) “黃帝曰 庭者，首面也，闕上者，咽喉也，闕中者，肺也，下極者，心也，直下者，肝也，肝左者，膽也，下者，脾也，方上者，胃也，中央者，大腸也，挾大腸者，腎也，當腎者，臍也，面王以上者，小腸也，面王以下者，膀胱子處也，顴者，肩也，顴後者，臂也，臂下者，手也，目內眥上者，膺乳也，挾繩而上者，背也，循牙車以下者，股也，中央者，膝也，膝以下者，脛也，當脛以下者，足也，巨分者，股裏也，巨屈者，膝臑也。”
- 193) “伯高曰 色起兩眉薄澤者，病在皮，脣色青黃赤白黑者，病在肌肉，營氣滯然者，病在血氣，目色青黃赤白黑者，病在筋，耳焦枯受塵垢，病在骨。”

경우가 곳곳에 기재되어 있다.

3) 九竅

『내경』에서 ‘九竅’를 직접 언급한 것은 14곳이며, ‘目’이나 ‘眼’과 같이 하나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락이나 장부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만 인체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인식(『素問·調經論』¹⁹⁴)하였고, 『素問·六節藏象論』¹⁹⁵)이나 『靈樞·邪客』¹⁹⁶)에서는 인체와 자연과의 천인상응관계를 설명하는 정도에서 九竅를 언급하고 있다.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九竅, 皆通乎天氣”(『素問·生氣通天論』)라 하여, 地上을 九州 혹은 九野(『素問·鍼解』¹⁹⁷)로 분할하여 인체의 九竅와 대응시켜 이것이 天氣와 상응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六經爲川, 腸胃爲海, 九竅爲水注之氣.”(『素問·陰陽應象大論』)라 하여 구구를 마치 물이 흐르는 곳으로 보았다. “九鍼通九竅”(『素問·鍼解』)라 하여 象數적으로 九鍼과 부회시켰다.

병리적으로 九竅의 불통을 강조하였는데, 음양의 조화가 잃거나(『素問·生氣通天論』¹⁹⁸), 어떤 病脈이 나타나면(『素問·玉機真藏論』²⁰⁰) 不通하고, 五臟이 不平하면(『素問·通評虛實論』²⁰¹) 不利해진다고 하였다. 三陽의 병으로 “九竅皆塞”(『素問·著至教論』²⁰²)하고, 陽明主病에 “九竅皆沈”(『素問·陰陽類論』²⁰³)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나이가 60이

194) “帝曰 人有精氣, 津液, 四支, 九竅, 五藏十六部, 三百六十五節, 乃生百病.”

195)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其氣九州九竅, 皆通乎天氣.”

196)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197) “人九竅三百六十五絡應野.”

198)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 陽不勝其陰, 則五藏氣爭, 九竅不通.”

199) “此因時之序, 故聖人傳精神, 服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閉九竅, 外壅肌肉, 衛氣散解, 此謂自傷, 氣之削也.”

200) “帝曰 夫子言脾爲孤藏, 中央土, 以灌四傍, 其太過與不及, 其病皆何如? 岐伯曰 太過則令人四支不舉, 其不及則令人九竅不通, 名曰重強.”

201)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

202) “帝曰 三陽者, 至陽也, 積并則爲驚, 病起疾風, 至如礮聲, 九竅皆塞, 陽氣滂溢, 乾噎喉塞.”

넘으면 기가 크게 쇠하여 九竅가 不利해진다고 하였다(『素問·陰陽應象大論』²⁰⁴).

4) 瞳子

『내경』에서 ‘瞳子’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된 것은 6곳이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망진에 있어서 동자의 모양과 상태로 경맥의 상태를 파악한 것(『素問·三部九候論』²⁰⁵),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인체의 다른 조직과 관련시켜 진단에 응용한 것(『靈樞·寒熱』²⁰⁶), 『靈樞·論疾診尺』²⁰⁷), 『靈樞·大惑論』²⁰⁸), 『素問·氣穴論』²¹⁰)과 자침시에 경혈의 위치를 설명한 것(『素問·氣穴論』²¹⁰)이 기재되어 있다.

5) 睛

『내경』에서 ‘睛’字는 1번 기재되어 있으며 양기가 눈으로 올라가 물체를 본다는 의미로 썼다(『靈樞·邪氣藏府病形』²¹¹). 즉 해부학적 의미에서의 ‘눈’이라는 의미보다는 문맥상 ‘시력’을 뜻하는 눈의 기능적인 측면을 뜻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203) “二陽一陰, 陽明主病, 不勝一陰, 栗而動, 九竅皆沈.”

204) “年六十, 陰痿, 氣大衰, 九竅不利, 下虛上實, 涕泣俱出矣.”

205) “瞳子高者太陽不足, 戴眼者太陽已絕, 此決死生之要, 不可不察也.”

206) “岐伯曰 反其目視之, 其中有赤脈, 上下貫瞳子, 見一脈, 一歲死, 見一脈半, 一歲半死, 見二脈, 二歲死, 見二脈半, 二歲半死, 見三脈, 三歲而死, 見赤脈不下貫瞳子, 可治也.”

207) “診寒熱瘰癧, 赤脈上下貫瞳子, 見一脈, 一歲死, 見一脈半, 一歲半死, 見二脈, 二歲死, 見二脈半, 二歲半死, 見三脈, 三歲死.”

208)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 裹擗筋骨血氣之精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209) “是故瞳子黑眼法於陰, 白眼赤脈法於陽也, 故陰陽合傳而精明也.”

210) “中△兩傍各五, 凡十六, 大樞上兩傍各一, 凡二穴, 目瞳子浮白二穴, 兩脾脈分中二穴, 攢鼻二穴, 耳中多所聞二穴.”

211) “岐伯答曰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 其別氣走於耳而爲聽, 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 其濁氣出於胃, 走唇舌而爲味.”

고 볼 수 있으며, 시력이 양기의 공급과도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6) 匡

『내경』에서 '匡'字는 2곳에서 언급되었다. '匡'은 진단에 있어서 생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素問·玉機眞藏論』²¹²), 주위를 잘못 刺鍼했을 경우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素問·刺禁論』²¹³).

7) 眇(眇)

'眇'字는 모두 34곳에서 사용되었는데, 눈 주위의 경락분포 관계에 대한 설명에 사용된 것(『素問·風論』²¹⁴), 『素問·氣府論』²¹⁵, 『素問·骨空論』²¹⁶, 『靈樞·經脈』²¹⁷(218)(219)(220)(221)(222), 『靈樞·經

- 212)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腹內痛, 心中不便, 肩項身熱, 破肌脫肉, 目匡陷, 眞藏見, 目不見人, 立死, 其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
- 213) "刺匡上陷骨中脈, 爲漏, 爲盲"
- 214) "風氣與陽明入胃, 循脈而上至目內眇, 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 則爲熱中而目黃, 人瘦則外泄而寒, 則爲寒中而泣出."
- 215) "手太陽脈氣所發者, 三十六穴, 目內眇各一, 目外各一, 肌骨下各一, 耳郭上各一, 耳中各一, 巨骨穴各一, 曲掖上骨穴各一, 柱骨上陷者各一, 上天 四寸各一, 肩解各一, 肩解下三寸各一, 肘以下至手小指本, 各六俞."
- 216) "督脈者, 起於少腹, 以下骨中央, 女子入繫廷孔, 其孔, 溺孔之端也, 其絡循陰器, 合篡間, 繞篡後, 別繞臀至少陰, 與巨陽中絡者合, 少陰上股內後廉, 貫脊屬腎, 與太陽起於目內眇, 上額交巔, 入絡腦, 還出別下項, 循肩膊內, 俠脊抵腰中, 入循脊絡腎."
- 217) "其支者, 從缺盆循頸, 上頰, 至目銳眇, 却入耳中, 其支者, 別頰上頰, 抵鼻, 至目內眇, 斜絡于頰."
- 218) "膀胱足太陽之脈, 起于目內眇, 上額, 交巔."
- 219) "三焦手少陽之脈, 起于小指次指之端 ……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過客主人前, 交頰至目銳眇."
- 220) "膽足少陽之脈, 起于目銳眇, 上抵頭角, 下耳後, 循頸, 行手少陽之前, 至肩上, 卻交出手少陽之後, 入缺盆."
- 221)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眇後, 其支者, 別銳眇, 下大迎, 合于手少陽, 抵於頰下, 加頰車, 下頰, 合缺盆, 以下胸中, 貫膈, 絡肝, 屬膽, 循脊裏, 出氣街, 繞毛際, 橫入脾脈中, 其直者, 從缺

別』²²³(224), 『靈樞·經筋』²²⁵(226)(227)(228), 『靈樞·營氣』²²⁹, 『靈樞·脈度』²³⁰, 『靈樞·寒熱病』²³¹ 『靈樞·癩狂』²³²), 운기 병변과 관련된 것(『素問·六元正紀大論』²³³, 『素問·至眞要大論』²³⁴, 『靈樞·衛氣』²³⁵, 『靈樞·衛氣行』²³⁶(237)), 눈과 경락이 연결되

- 盆下腋, 循胸, 過季脅, 下合脾脈中, 以下循脾陽, 出膝外廉, 下外輔骨之前, 直下抵絕骨之端, 下出外踝之前, 循足跗上, 入小指次指之間."
- 222)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頰痛, 目銳眇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瘰, 汗出振寒, 病, 胸脅肋脾膝外至脛絕骨外踝前及諸節皆痛, 小指次指不用."
- 223) "足少陽之正, 繞脾, 入毛際, 合于厥陰, 別者, 入季脅之間, 循胸裏, 屬膽, 散之上肝貫心, 以上挾咽, 出頰頰中, 散于面, 繫目系, 合少陽于外眇也."
- 224) "手少陰之正, 別入于淵腋兩筋之間, 屬于心, 上走喉嚨, 出于面, 合目內眇, 此爲四合也."
- 225) "足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 上結外踝 …… 支者, 結于目眇爲外維."
- 226) "手太陽之筋, 起于小指之上, 結于腕 …… 其支者, 入耳中, 直者, 出耳上, 下結于頰, 上屬目外眇."
- 227) "本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眇, 上頰, 結于角, 其痛當所過者支轉筋."
- 228) "手少陽之筋, 起于小指次指之端, 結于腕 …… 其支者, 上曲牙, 循耳前, 屬目外眇, 上乘頰, 結于角."
- 229) "從脾注心中, 循手少陰出腋下臂, 注小指, 合手太陽, 上行乘腋出內, 注目內眇, 上頰下項, 合足太陽, 循脊下尻, 下行注小指之端, 循足心注足少陰, 上行注腎."
- 230) "歧伯答曰 蹠脈者, 少陰之別, 起于然骨之後, 上內踝之上, 直上, 循陰股, 入陰, 上循 裏, 入缺盆, 上出人迎之前, 入頰, 屬目內眇, 合于太陽蹠蹠而上行."
- 231) "足太陽有通項入于腦者, 正屬日本, 名曰眼系, 頭目苦痛取之, 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陰蹠蹠,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眇."
- 232) "目眇外決于面者, 爲銳眇, 在內近鼻者爲內眇, 上爲外眇, 下爲內眇."
- 233) 水火寒熱持於氣交而爲病始也, 熱病生於上, 清病生於下, 寒熱凌犯而爭於中, 民病欬喘, 血溢, 血泄, 肌噎, 目赤眇瘍, 寒厥入胃, 心痛腰痛, 腹大噎乾, 腫上.
- 234) "陽明司天, 燥淫所勝, 則木迺晚榮, 草迺晚生, 筋骨內變 …… 心脇暴痛, 不可反側, 噎乾, 面塵腰痛, 丈夫癩疽, 婦人少腹痛, 目眇, 癩瘡瘰癧."
- 235) "手少陽之本, 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 標在耳後上角下外眇也."
- 236) "其散者, 別於目銳眇, 下手太陽, 下至手小指之間外側."
- 237) "其散者, 別於目銳眇,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側, 下至小指之間."

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병사가 경락에 침범할 경우 눈에 병증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素問·繆刺論』²³⁸)、『靈樞·經脈』²³⁹)、『靈樞·經筋』²⁴⁰)、『靈樞·熱病』²⁴¹)과、一水(目的 精)가 五火(五臟의 陽氣가 亢盛)를 이기지 못하여 사물을 볼 수 없게 되는 目昏盲(『素問·解精微論』²⁴²)이 있다.

또한 臟腑 및 六淫과 관련해서는 오행속성에 따른 발병기전(『素問·氣交變大論』²⁴³) 혹은 진단 기전을 설명하였다(『靈樞·熱病』²⁴⁴)、『靈樞·五閱五使』²⁴⁵)、『靈樞·五色』²⁴⁶)、『靈樞·論勇』²⁴⁷)。

2. 눈의 기능

1) 見

‘見’字는 『내경』에서 191곳에서 나타나며, 그 의미는 환자의 시력과 관련하여 ‘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나타나다(現)’、‘증상이 드러나다’、‘알아 보다(認識)’、의사가 환자를 ‘살피보다(察)’、‘노출되다’、‘출혈시키다’、정신과 질환 영역에서 ‘헛것을 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전적으로 환자의 시력에 관련된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衝陽穴을 설명한 경우(『素問·鍼解』²⁴⁸)와 붉은 구름、황색 구름과 청색 노을 등과 같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경우(『素問·刺法論』²⁴⁹)²⁵⁰)²⁵¹)가 있다.

자연과 시간성에 관하여 『素問·脈解』에서 ‘萬物의 氣가 歸藏되어 收斂되는 시기인 申月에 秋氣가 이름에 少陰經脈에 脫盡 消耗되어 병이 발생되면 눈이 캄캄해지면서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²⁵²)고 하였으며, 눈동자와 신장이 유관함을 『靈樞·經脈』에서는 ‘足少陰腎經脈의 是動病에 있어 눈동자가 骨의 精氣이므로 腎氣가 內奪하면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다’²⁵³)고 언급하였다.

생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눈물과 콧물에 관한 기전을 밝힘에 있어 津液이 마르면 精氣가 空竅를 灌溉하지 못하게 되어 눈이 보이지 않는 ‘奪精’의 상태를 『靈樞·口問』에서 논술하고 있다²⁵⁴).

병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見’字가 ‘目無所見’으로 사용된 경우는 腎虛內熱로 인하며 ‘骨痿’의 경우(『靈樞·邪氣藏府病形』²⁵⁵)、人氣가 厥逆하여 陽氣가 聚하고 陰氣가 下并하여 目精이 五臟의 厥陽인 火氣를 이길 수 없는 경우(『素問·解精微論』²⁵⁶)、髓海가 부족으로 인한 ‘眩暈 證’이 생긴 경우(『靈樞·海論』²⁵⁷)는 눈을 사용하여 외물을 볼

238) “邪客於足陽蹻之脈，令人目痛從內眥始。”

239) “是主氣所生病者，汗出，目眦皆痛，頰痛，耳後，肩，臑，肘，臂外皆痛，小指次指不用。”

240) “陽急則反折，陰急則僂不伸，痺刺者，刺寒急也，熱則筋縱不收，無用燔鍼，名曰季冬痺也，足之陽明，手之太陽，筋急則口目爲噤，皆急不能卒視，治皆如右方也。”

241) “目中赤痛，從內眥始，取之陰蹻。”

242) “夫一水不勝五火，故目昏盲。”

243) “歲金太過，燥氣流行，肝木受邪，民病兩脇下少腹痛，目赤痛眦癢，耳無所聞。”

244) “熱病噤乾多飲，善驚，臥不能起，取之膚肉，以第六鍼，五十九，目昏青，素肉于脾，不得索之木，木者肝也。”

245) “故肺病者，喘息鼻張，肝病者，眦青，脾病者，脣黃，心病者，舌捲短，顛赤，腎病者，顛與顏黑。”

246) “黃帝曰 庭者，首面也，闕上者，咽喉也…… 目內眥上者，膺乳也”

247) “少俞曰 勇士者，目深以固，長衡直數，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張，肝舉而膽橫，皆裂而目數，毛起而面蒼，此勇士之由然者也。”

248) “所謂跗之者，舉膝分見也。”

249) “是故寅申之歲，少陰降地…… 降而不下，即形雲纒見…… 凜冽復作，天雲慘懷。”

250) “是故卯酉之歲，太陰降地…… 降而不下，即黃雲見而青霞彰…… 霧翳埃勝，折損乃作。”

251) “是故辰戌之歲，少陽降地…… 水降不下，即形雲纒見…… 冷氣卒至，甚即冰雹也。”

252) “所謂色不能久立，久坐起則目眩無所見者，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秋氣始至，微霜始下，而方殺萬物，陰陽內奪，故目眩無所見也。”

253) “是動則病饑不慾食，面如漆柴，欬唾則有血，喝喝而喘，坐而慾起，目眩如無所見，心如懸若饑狀。”

254) “故上液之道開則泣，泣不止則液竭，液竭則精不灌，精不灌則目無所見矣，故名曰奪精。”

255) “滑甚爲痿痺，微滑爲骨痿，坐不能起，起則目無所見，澀甚爲大癰，微澀爲不月沈痔。”

256) “且子獨不誦不念夫經言乎？厥則目無所見。”

257)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髓海不足，則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外邪致病의 측면에서 風邪가 頂에 적중하면 精이 흩어져 눈동자가 기울어져 물체가 둘로 보이는 '視岐證(『靈樞·大惑論』)이나²⁵⁸⁾, 정신 분야에 있어 갑자기 이상한 것을 보면 심신과 혼백이 흩어져 서로 협조를 못하므로 '眩惑證(『靈樞·大惑論』)²⁵⁹⁾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瘧疾의 경우에 있어 胃經에 陰瘧이 발생되면 胃虛하므로 따뜻함을 좋아하여 햇빛이나 밝은 달을 보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서술하고 있으며(『素問·刺瘧』)²⁶⁰⁾, 腦經에 학질이 발생되면 肝膽虛證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싫어하고 사람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素問·刺瘧』)²⁶¹⁾.

진단 방면에 있어 眞藏脈이 나타난 경우는 환자의 시력이 떨어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이 발현(『素問·玉機眞藏論』)²⁶²⁾、『素問·藏氣法時論』²⁶³⁾된다고 하였다.

치료 방면에 있어 귀로 들리는 것이 없고 눈으로 보이는 바가 없는 것을 치료하는 '發矇法에 관한 눈술이 『靈樞·刺節眞邪』²⁶⁴⁾에 기록되어 있다.

2) 淚와 泣

『내경』에서는 '淚'字가 5회, '泣'字는 45회 기재되어 있다. 두 글자 모두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泣'字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맥상 '눈

물'이라는 뜻 외에 '웅고되다', '혈자리 이름' 등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泣'字가 『내경』에서 눈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 중 "그러므로 위쪽의 液道가 열리면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津液이 고갈되고 진액이 고갈되면 눈에 精을 덜 수 없고 정을 덜 수 없으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奪精이라고 한다."(『靈樞·口問』)²⁶⁵⁾、"눈물과 콧물은 腦이다. 腦라는 것은 陰이다. 髓는 뼈이 충만한 것이므로 뇌가 스며 나와 콧물이 된다. 志는 뼈이 주관한다. 때문에 水가 흐를 때 콧물이 그것을 따라나오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대개 콧물과 눈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형제에 비유되어 죽으면 함께 죽고, 살면 함께 산다.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 콧물과 눈물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대개 눈물과 콧물이 함께 나오는 것은 눈물과 콧물이 속한 류가 같기 때문이다."(『素問·解精微論』)²⁶⁶⁾²⁶⁷⁾²⁶⁸⁾、"오액 가운데 심은 땀, 간은 눈물, 폐는 콧물, 신과 비는 침을 주관하는데 이것은 오액이 나오는 바이다."(『靈樞·九鍼論』)²⁶⁹⁾、『素問·宣明五氣』²⁷⁰⁾、"五臟六腑、膽、胃、小腸、脾、胞、膀胱、腦、髓、涕、唾와 슬퍼서 우는 것은 모두 水가 行하는 바이니 이것은 모두 사람을 生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過失을 다스리고 그것을 밝히는데 힘쓰면 온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원망을 살 것이다."(『素問·示從容論』)²⁷¹⁾라고 한

腦轉耳鳴、脛痠眩冒、目無所見、懈怠安臥。”

258) "邪其精，其精所中，不相比也。則精散，精散則視岐、視岐見兩物。”

259) "卒然見非常處，精神魂魄，散不相得，故曰惑也。”

260) "足陽明之病，令人先寒漸瀉瀉，寒甚久乃熱，熱去汗出，喜見日月光火氣，乃快然，刺足陽明跗上。”

261) "足少陽之病，令人身體勝？寒不甚，熱不甚，惡見人，見人心惕惕然，熱多汗出甚，刺足少陽。”

262) "大骨枯槁，大肉陷下，胸中氣滿，腹內痛，心中不便，肩項身熱，破脇脫肉，目匡陷，眞藏見，目不見人，立死，其見人者，至其所不勝之時則死。”

263) "肝病者，兩脇下痛引少腹，令人善怒，虛則目眩暈無所見，耳無所聞，善恐如人將捕之。”

264) "夫發矇者，耳無所聞，目無所見，夫子乃言刺府輪，去府病，何輪使然？願聞其故。”

265) "故上液之道開則泣，泣不止則液竭，液竭則精不灌，精不灌則目無所見矣，故命曰奪精。”

266) "泣涕者腦也，腦者陰也，髓者，骨之充也，故腦滲爲涕。”

267) "夫涕之與泣者，譬如人之兄弟，急則俱死，生則俱生，其志以早悲，是以涕泣俱出而橫行也。”

268) "夫人涕泣俱出而相從者，所屬之類也。”

269) "五液，心主汗，肝主泣，肺主涕，腎主唾，脾主涎，此五液所出也。”

270) "五藏化液，心爲汗，肺爲涕，肝爲淚，脾爲涎，腎爲唾，是謂五液。”

271) "黃帝燕坐，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若能覽觀雜學，及於比類，通合道理，爲餘言子所長，五藏六腑，膽胃大小腸脾胞膀胱，腦髓涕唾，哭泣悲哀，水所

것은 눈물은 인체의 五液 중 肝과 관련된 체액이며, 또한 울 때 눈물과 콧물이 함께 나오는 것은 오행속성상 木과 金으로 구분되지만 모두 髓海인 뇌에서 삼출되어 나온 형제관계의 체액이기 때문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였다. 즉 눈물과 콧물은 기원이 같다고 인식한 것으로 생각되며, '눈물'이 진액의 일부로써 精과도 밀접한 관계라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경』에서는 병리적인 눈물의 분비에 관하여 “60세가 되면 陰痿가 되고 기가 쇠약져서 구구가 불리해지고 下虛上實의 상태가 되어 눈물과 콧물을 모두 흘리게 된다.”(『素問·陰陽應象大論』)²⁷²、“풍사가 양명경을 타고 胃로 들어가서 다시 경맥을 따라 目內眥에 까지 올라가는데, 살진 사람은 풍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熱中하게 되어 目黃이 되고 마른 사람은 풍기가 外泄되므로 차게 되어 寒中하고 눈물이 나게 된다.”(『素問·風論』)²⁷³、“수태양경이 권역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물이 나오고 고개를 돌릴 수 없으며, 허리를 굴신할 수 없다.”(『素問·厥論』)²⁷⁴、“三之氣가 주관하는 시기가 도래하니 風氣가 옮겨와 시령을 주관하면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어쩔어질한 병에 걸린다.”(『素問·六元正紀大論』)²⁷⁵、“이 때문에 風을 만나면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素問·解精微論』)²⁷⁶、“대개 風邪가 눈에 침입하면 陽氣는 내부의 精을 지키는데, 이렇게 되면 火氣가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風을 만나면 눈물이 난다”(『素問·解精微論』)²⁷⁷、“폐기

가 성하면 꿈속에서 두렵고 운다.”(『靈樞·淫邪發夢』)²⁷⁸라 하여 눈물의 분비가 인체의 精氣、風邪、肺氣 및 經脈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감정과 눈물에 관해서도 ‘泣’자가 사용되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神이 감동하지 않은 것이다. 神이 감동하지 않으면 志가 슬퍼하지 않아 腎志와 心志가 서로 교감할 수 없으니 눈물이 어찌 흘러나올 수 있으리오? 대개 志가 슬퍼하는 것은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무치는 것이 있으면 울결한 氣가 가슴에서 치솟으며, 氣가 치솟으면 腎志는 눈에서 떠나는데 눈을 떠나면 神이 精을 지킬 수 없다. 만일 精과 神이 모두 눈에서 떠나면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오게 된다”(『素問·解精微論』)²⁷⁹、“사람이 슬프면 눈물과 콧물이 나오는데 어느 氣가 그렇게 하는가?”(『靈樞·口問』)²⁸⁰、“그러므로 슬프면 心이 동요하고 心이 동요하면 오장육부가 모두 요동하게 되고 요동하면 宗脈이 감동하고 宗脈이 감동하면 液道가 열린다. 液道가 열리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이 나온다.”(『靈樞·口問』)²⁸¹、“황제가 말하기를 대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울지만 슬프지 않기 때문이다”(『素問·解精微論』)²⁸² 라고 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눈물의 생리적인 분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靈樞·五癰津液別』)²⁸³、『素問·解精微論』²⁸⁴(285/286)).

277) “夫風之中目也，陽氣內守於精，是火氣燻目，故見風則泣下也。”

278) “肝氣盛，則夢怒，肺氣盛，則夢恐懼，哭泣，飛駭，心氣盛，則夢善笑，恐畏，脾氣盛，則夢歌樂，身體重不舉，腎氣盛，則夢腰脊兩解不屬。”

279) “不泣者，神不慈也，神不慈則志不悲，陰陽相持，泣安能獨來？夫志悲者恹，恹則衝陰，衝陰則志去目，志去則神不守精，精神去目，涕泣出也。”

280) “黃帝曰 人之哀而泣涕出者，何氣使然？”

281) “故悲哀愁憂則心動，心動則五藏六府皆搖，搖則宗脈感，宗脈感則液道開，液道開，故泣涕出焉。”

282) “雷公曰 大矣！請問人哭泣而淚不出者，若出而少，涕不從之何也？帝曰 夫泣不出者，哭不悲也。”

283) “黃帝問于歧伯曰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

284) “公請問 哭泣而淚不出者，若出而少涕，其故何也？”

從行，此皆人之所生，治之過失，子務明之，可以十全，即不能知，爲世所怨。”

272) “年六十，陰痿，氣大衰，九竅不利，下虛上實，涕泣俱出矣。”

273)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眥，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人瘦則外泄而寒，則爲寒中而泣出。”

274) “手太陽厥逆，耳聾泣出，項不可以顧，腰不可以伛仰，治主病者，手陽明少陽厥逆，發喉痺，喉腫，瘰，治主病者。”

275) “三之氣，天政布，風乃時舉，民病泣出，耳鳴掉眩。”

276) “是以衝風，泣下而不止。”

‘泣出’의 치료에 대해서는 “泣出에는 天柱와 머리 증상을 보한다.”(『靈樞·口問』²⁸⁷)、 “厥頭痛과 頭脈痛 그리고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잘 나는 것에는 머리의 맥이 뛰는 것을 살펴서 붉게 나온 것을 모두 취하여 혈을 제거하고 죽결음맥을 조절한다.”(『靈樞·厥病』²⁸⁸)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淚’字와 ‘泣’字는 “대개 심과 폐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데 항상 정상적일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역상하기도 하고 잠시 下陷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침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靈樞·五癰津液別』²⁸⁹)와 같이 눈물을 뜻하는 글자로 곳곳에서 사용되었다(『靈樞·邪氣藏府病形』²⁹⁰、 『靈樞·經脈』²⁹¹).

3) 盲

『내경』에서 ‘盲’字는 4곳에서 사용되었다. 기재된 내용은 모두 안과영역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陽氣가 번뇌와 과로로 인하여 너무 항진되어 精이 絶하고 양기만 축적되면 여름에 사람으로 하여금 煎厥증상이 나타나게 한다. 그때는 눈이 멀어져서 사물을 볼 수 없고, 귀는 막혀서 들을 수 없는데, 성이 무너지는 것과 급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멈출 수 없다.”(『素問·生氣通天論』²⁹²)、 “얼굴 부위를 자짐 할 때 溜脈에 침을 놓아서 잘못되면 실명하게 된다.”(『素問·刺禁論』²⁹³)、 “눈두덩이 상에서 뼈가 오목하게 들어

간 곳의 맥을 찌르면 혈이 스며 나오게 되어 실명한다.”(『素問·刺禁論』²⁹⁴)、 “일반적으로 하나의 水氣로는 다섯의 火氣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된다.”(『素問·解精微論』²⁹⁵)라고 하여 亢盛한 陽氣、 刺鍼誤謬、 火氣에 의하여 ‘盲’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4) 瞑

‘瞑’字는 『내경』에 총 24번 기재되어 있다. ‘瞑’은 대부분 ‘눈이 멀다’ 혹은 ‘눈을 감다’라는 환자의 시각장애를 뜻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몇몇 곳에서는 안과와 관련이 없는 ‘잠잠하다’、 ‘잠을 자다’(『靈樞·口問』²⁹⁶)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눈이 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열병에 먼저 몸이 붓고 뼈가 아프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멀게 될 때는 족소음에 자침하고, 병이 심하면 59자를 사용하라.”(『素問·刺熱』²⁹⁷)、 “膽熱이 뇌로 들어가면 코가 새큰해지고 鼻淵이 되며, 鼻淵이 되면 탁한 콧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그치지 않으며 코피와 눈이 멀어지는 병으로 전이된다.”(『素問·氣厥論』²⁹⁸)와 같이 熱 및 기타 邪氣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靈樞·熱病』²⁹⁹)、 『靈樞·邪客』³⁰⁰)가 있고, “太陽、 太角、 太陰、 壬辰、 壬戌인 해에 그 운이 風이면 그 운이 어지럽게 올리고 흩어지는 작용을 하여 그 변동으로 몸이 손상되면 질병은 어질어질하고 눈이 멀게 된다.”(『素問·

285) “是以悲哀則泣下，泣下水所由生。”

286) “是以俱悲則神氣傳於心精，上不傳於志而志獨悲，故泣出也。”

287) “泣出，補天柱經俠頸，俠頸者，頭中分也。”

288) “厥頭痛，頭脈痛，心悲善泣，視頭動脈反盛者，刺盡去血，後調足厥陰。”

289) “夫心承與肺，不能常舉，乍上乍下，故欬而泣出矣。”

290) “大甚爲喉啞，微大爲心痺引背，善淚出，小甚爲善噦，微小爲消糞。”

291) “是主筋所生病者，痔，癰，狂，癲疾，頭顛項痛，目黃，淚出，衄血，項背腰尻關節脚皆痛，小指不用。”

292) “陽氣者，煩勞則張，精絕辟積，於夏使人煎厥，目盲不可以視，耳閉不可以聽，潰潰乎若壞都，汨汨乎不可止。”

293) “刺面，中溜脈，不俾爲盲。”

294) “刺匡上陷骨中脈，爲漏，爲盲。”

295) “夫一水不勝五火，故目昏盲。”

296) “陽氣盡，陰氣盛，則目瞑，陰氣盡而陽氣盛，則寤矣。”

297) “熱病先身重骨痛，耳聾好瞑，刺足少陰，病甚，爲五十九刺。”

298) “膽移熱於腦，則辛頰鼻淵，鼻淵者，濁涕下不止也，傳爲衄衄瞑目。”

299) “熱病身重骨痛，耳聾而好瞑，取之骨，以第四鍼，五十九刺，骨病不食，齧齒耳膏，索骨于腎，不得索之土，土者脾也。”

300) “黃帝問於伯高曰 夫邪氣之客人也，或令人目不瞑不臥出者，何氣使然?”

六元正紀大論』)³⁰¹、 “三之氣가 주관하는 시기가 되어 더운 기운이 이르렀는데, 각기 少陽相火가 다시 상임하고 비가 많이 오면 백성들의 병은 熱中이 되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눈이 멀고 출혈이 되고 膿瘡、咳嗽、嘔吐、衄、血、渴、嚏、缺、喉痺、目赤등이 발생하고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다.”(『素問·六元正紀大論』)³⁰²、 “陽明이 不退位하면 봄에도 淸冷한 기운이 있어서 草木이 늦게 자라고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嘔吐와 수액대사 장애로 食飲不下、大便乾燥、四肢不舉、目眩掉眩의 증상이 나타난다.”(『素問·本病論』)³⁰³、 “少陰司天에 客氣가 勝하면 肌噎頸項強、肩背脊熱、頭痛、少氣、發熱、耳聾、目瞑의 증상이 나타난다.”(『素問·至眞要大論』)³⁰⁴와 같이 운기 병변에 의하여 瞑의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素問·六元正紀大論』)³⁰⁵³⁰⁶、 『素問·至眞要大論』)³⁰⁷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 병은 소지에서 팔꿈치 내측 銳骨 뒤쪽에 이르는 통증이 있고, 팔뚝 안쪽을 따라 겨드랑이 아래로 들어가 겨드랑이 아래가 아프고, 겨드랑이 뒷부분도 아프며 견갑부를 둘러 목도 당기고 아프다. 웅당 耳鳴과 턱까지 당기는 통증이 있으며, 눈이 어두워져서 오랫동안 자세히 쳐다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목의 근육이 당기고 근육에 부스럼이 생기고 목이 붓는다.”(『靈樞·經筋』)³⁰⁸와 같이 經筋病에 의해 ‘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 이외에 陰陽失調(『靈樞·邪客』)³⁰⁹와 精神錯亂(『靈樞·大惑論』)³¹⁰ 역시 ‘瞑’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瞑’은 또한 ‘눈을 감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는데, 눈이 감겨 물체를 볼 수 없는 것에 대하여 “衛氣가 陰分에 머물면 陽分으로 운행하지 못하는데, 衛氣가 陰分에 머물면 陰氣가 지나치게 盛해지고, 陰氣가 盛해지면 陰脈이 충만해진다. 陽分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陽氣가 虛해져 눈이 감긴다.”(『靈樞·大惑論』)³¹¹고 하였다. 따라서 “陽氣가 盛하면 눈을 부릅뜨고 陰氣가 盛하면 눈을 감는다.”(『靈樞·寒熱病』)³¹²라 하여 陽氣가 눈꺼풀을 여는 작용을 주관하고, 陰氣는 닫는 작용을 주관하며, 이는 蹻脈이目中에서 交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瞑’은 ‘눈을 감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5) 視

‘視’字는 ‘見’字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내경』에서는 모두 121 곳에서 ‘視’字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素問·八正神明論』)³¹³、 『靈樞·官能』)³¹⁴、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관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素問·脈要精微論』)³¹⁵、 『靈樞·熱病』)³¹⁶가 있으며 드물게 ‘살다

301) “太陽、太角、太陰、壬辰、壬戌、其運風、其化鳴素啓拆、其變振拉摧拔、其病眩掉目瞑。”

302) “三之氣、天政布、炎暑至、少陽臨上、雨洒漉、民病熱中、聾瞑血溢、膿瘡欬嘔、衄血渴噎缺、喉痺目赤、善暴死。”

303) “陽明不退位、即春生淸冷、草木晚榮、寒熱間作、民病嘔吐暴注、食飲不下、大便乾燥、四肢不舉、目眩掉眩。”

304) “少陰司天、客勝則肌噎頸項強、肩背脊熱、頭痛少氣、發熱、耳聾目瞑、甚則肌腫、血溢瘡瘍、欬喘、主勝則心熱煩躁、甚則脇痛支滿。”

305) “其病淋、目瞑目赤、氣鬱於上而熱。”

306) “往復之作、民病寒熱瘧泄、聾瞑嘔吐、上拂腫色變。”

307) “民病腹中常鳴、氣上衝胸、喘、不能久立、寒熱皮膚痛、目瞑齒痛、頰腫、惡寒發熱如癘、少腹中痛、腹大、蟄蟲不藏。”

308) “其病小指支肘內銳骨後廉痛、循臂陰、入腋下、腋

下痛、腋後廉痛、繞肩胛引頸而痛、應耳中鳴痛引頰、目瞑、良久乃得視、頸筋急則爲筋癢頸腫。”

309) “行於陽則陽氣盛、陽氣盛則陽蹻陷、不得入於陰、陰虛、故目不瞑。”

310) “餘私異之、竊內怪之、獨瞑獨視、安心定氣、久而不解。”

311)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常留於陽、留於陽則陽氣滿、陽氣滿則陽蹻盛、不得入於陰則陰氣虛、故目不瞑矣。”

312) “陽氣盛則瞑目、陰氣盛則瞑目。”

313) “岐伯曰 請言神、神乎神、耳不聞、目明心開、而志先、慧然獨悟、口弗能言、俱視獨見、適若昏、昭然獨明、若風吹雲、故曰神。”

314) “黃帝曰 明目者、可使視色。”

315) “切脈動靜而視精明、察五色、觀五藏有餘不足、六

(活)·'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에는 "陽氣가 번뇌와 과로로 인하여 너무 항진되어 精이 絶하고 양기만 축적되면 여름에 사람으로 하여금 煎厥증상이 나타나게 한다. 그때는 눈이 멀어져서 사물을 볼 수 없고, 귀는 막혀서 들을 수 없는데, 성이 무너지는 것과 급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멈출 수 없다."(^{『素問·生氣通天論』}317), "그러므로 사람이 누우면 血이 肝으로 들어가 肝이 血을 받으면 볼 수 있다."(^{『素問·五藏生成』}318), "精明은 萬物을 보고 黑白을 구별하고 短長을 살핀다."(^{『素問·脈要精微論』}319), "머리는 精明이 있는 곳인데 환자의 머리가 기울고 깊은 곳을 보는 것은 精神이 장차 없어지려는 것이다."(^{『素問·脈要精微論』}320), "五勞所傷은 즉 오랫동안 눈을 사용하면 血을 상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氣를 상하고, 오랫동안 앉았 있으면 肉을 상하고, 오랫동안 서있으면 骨을 상하고, 오랫동안 걸으면 筋을 상한다. 이것을 五勞所傷이라 한다."(^{『素問·宣明五氣』}321), "精이 흩어지면 물체가 흩어져 보이는데, 물체가 흩어져 보이는 것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이다."(^{『靈樞·大惑論』}322), "心에는 좋아하는 바가 있고, 神에는 싫어하는 바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서로 현혹되면 精氣가 어지러워져서 헛것을 보는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현혹된 것은 神이 되돌아오면 곧 회복된다."(^{『靈樞·大惑論』}323), "죽양명과 수태

府強弱, 形之盛衰, 以此參伍, 決死生之分."
 316) "熱病頭痛, 顛顛, 目眵, 脈痛, 善衄, 厥熱病也, 取之以第三鍼, 視有餘不足, 寒熱痔."
 317) "陽氣者, 煩勞則張, 精絕辟積, 於夏使人煎厥, 目盲不可以視, 耳閉不可以聽, 潰潰乎若壞都, 汨汨乎不可止."
 318) "故人臥, 血歸於肝, 肝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血而能握, 指受血而能攝."
 319) "夫精明者, 所以視萬物, 別白黑, 審短長."
 320) "頭者, 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321) "五勞所傷,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是謂五勞所傷."
 322) "邪其精, 其精所中, 不相比也, 則精散, 精散則視岐, 視岐見兩物."

양의 경근이 급하면 입과 눈이 빠떨어지고 눈꼬리가 당겨서 빠르게 볼 수 없을 때에는 우측의 기재된 것처럼 치료하라."(^{『靈樞·經筋』}324)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종 병증과 관련하여 환자의 시각에 관련된 경우(^{『素問·評熱病論』}325), ^{『素問·氣交變大論』}326), ^{『靈樞·經筋』}327), ^{『靈樞·癲狂』}328), ^{『靈樞·大惑論』}329), 진단에 응용한 경우(^{『靈樞·四時氣』}330), ^{『靈樞·邪客』}331) 및 각종 안과 관련 병기가 기재된 경우(^{『靈樞·九鍼論』}332)가 있었다. 여기에서 '視'는 눈의 생리, 병리, 진단, 정신과의 관계,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6) 液

'液'字는 일반적으로 津液을 뜻하는 글자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내경』에서는 '液'字가 71건 기재되어 있다. 『내경』에서도 역시 주로 '津液'을 뜻하는 글자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안과와 관련해서는 五液에 '淚'가 포함되기 때문에 '液'이 눈물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눈물'의 뜻을 포함하는 경우

323) "心有所喜, 神有所惡, 卒然相惑, 則精氣亂, 視誤, 故惑, 神移乃復."
 324) "足之陽明, 手之太陽, 筋急則口目爲噤, 皆急不能卒視, 治皆如右方也."
 325) "岐伯曰 勞風法在肺下, 其爲病也, 使人強上冥視, 唾出若涕, 惡風而振寒, 此爲勞風之病."
 326) "復則大風暴發, 草偃木零, 生長不鮮, 面色時變, 筋骨併闢, 肉眦癢, 目視眩眩, 物疎墜, 肌肉疹發, 氣并兩中, 痛於心腹."
 327) "其病小指支肘內銳骨後廉痛, 循臂陰, 入腋下, 腋痛, 腋後廉痛, 繞肩胛引頸而痛, 應耳中鳴痛引頰, 目瞑, 良久乃得視, 頸筋急則爲筋癢頸腫."
 328) "癲疾始生, 先不樂, 頭重痛, 視舉目赤, 甚作極已而煩心, 候之于顏, 取手太陽, 陽明, 太陰, 血變而止."
 329) "黃帝曰 病目而不得視者, 何氣使然? 岐伯曰 衛氣留於陰, 不得行於陽, 留於陰則陰氣盛, 陰氣盛則陰滿, 不得入於陽則陽氣虛, 故目閉也."
 330) "觀其色, 察其目, 以知其散復者, 視其目色, 以知病之存亡也."
 331) "因視日之五色, 以知五藏而決死生."
 332) "五勞,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此五久勞所病也."

가 있으며, 눈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눈의 생리병리와 관련된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液’이 눈의 생리병리 및 기타 안과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7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五藏은 液을 변화시키는데, 心은 汗, 肺는 涕, 肝은 淚, 脾는 涎, 腎은 唾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五液이다.”(『素問·宣明五氣』)³³³⁾、“津液所生病은 目黃, 口乾, 眦衄, 喉痺, 肩前臈痛, 大指次指痛不用 등과 관련되어 있다.”(『靈樞·經脈』)³³⁴⁾、“液所生病은 耳聾, 目黃, 頰腫, 頸頰肩臈肘臂外後廉痛 등과 관련되어 있다.”(『靈樞·經脈』)³³⁵⁾、“心은 五藏六府의 주인이고 눈은 宗脈이 모인 곳으로 눈물의 통로이며 口鼻는 氣의 門戶이다. 그러므로 슬프면 心이 동하고 心이 동하면 五藏六府가 모두 요동하게 되며, 오장육부가 요동하면 宗脈 또한 감동되고 宗脈이 감동되면 液道가 열린다. 液道가 열리기 때문에 눈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液은 竅를 적시고 영양한다. 때문에 눈물의 통로가 열려 눈물을 흘리는데, 만일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液이 고갈되고, 液이 고갈되면 精이 자양하지 못하고 精이 자양하지 못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奪精이라고 한다.”(『靈樞·口問』)³³⁶⁾、“水穀이 입으로 들어가 腸胃에 전달되면 그 液이 나뉘어 다섯이 된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으면 소변과 氣가 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껍게 입으면 땀이 되며, 슬픔에 치우치면 눈물이 되고, 속이 덥고 胃가 느슨해지면 침이 된다.”(『靈樞·五癯津液別

』)³³⁷⁾、“그러므로 五藏六府의 津液은 모두 눈으로 스며들고, 心이 悲氣로 치우치면 心系가 급해지고, 心系가 급해지면 肺가 요동하고, 肺가 요동하면 液이 위로 넘친다.”(『靈樞·五癯津液別』)³³⁸⁾、“五液은 心이 汗, 肝이 泣, 肺가 涕, 腎이 唾, 脾가 涎을 주관하는데, 이것은 五液이 나오는 곳이다.”(『靈樞·九鍼論』)³³⁹⁾라 하여 液은 五液을 뜻하며 그중 肝에 소속된 液이 淚泣이며, 오장의 진액은 또한 모두 위로 눈과 연계되어 있고, 心과 폐의 영향을 받아 눈물이 나오게 된다는 이론을 설명하는 가운데 ‘液’字가 사용되었다.

7) 瞶

‘瞶’字는 ‘눈꺼풀이 떨리다’라는 뜻과 ‘췌가 나다’ 또는 ‘근육이 떨린다’라는 뜻이 있으며, 『내경』에서는 모두 6곳에서 사용되었다. 그중 ‘눈꺼풀이 떨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예는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厥氣가 위로 올라가면 얼굴에 때가 낀 것 같고 눈은 눈꺼풀이 떨린다.”³⁴⁰⁾라고 한 것 뿐이다.

III. 結 論

본자는 본문을 통하여 눈과 관련된 문자를 통하여 『황제내경』의 관련 조문을 찾아본 결과, 다음 【도표】와 같은 수의 조문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333) “五藏化液。心爲汗，肺爲涕，肝爲淚，脾爲涎，腎爲唾，是謂五液。”

334) “是主津液所生病者，目黃，口乾，眦衄，喉痺，肩前臈痛，大指次指痛不用。”

335) “是主液所生病者，耳聾，目黃，頰腫，頸頰肩臈肘臂外後廉痛。”

336) “岐伯曰 心者，五藏六府之主也。目者，宗脈之所聚也。上液之道也。口鼻者，氣之門戶也。故悲哀愁憂則心動，心動則五藏六府皆搖，搖則宗脈感，宗脈感則液道開，液道開，故泣涕出焉。液者，所以灌精濡空竅者也。故上液之道開則泣，泣不止則液竭，液竭則精不灌，精不灌則目無所見矣。故命曰奪精。”

337) “黃帝問于岐伯曰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

338) “故五藏六府之津液，盡上滲于目，心悲氣并則心系急，心系急則肺舉，肺舉則液上溢。”

339) “五液，心主汗，肝主泣，肺主涕，腎主唾，脾主涎，此五液所出也。”

340) “厥氣上行，面如浮埃，目乃瞶瘵”

구분	문자	조문	안과 관련 조문 수
눈의 구조	眼	11	11
	目	182	180
	九竅	14	14
	瞳子	6	6
	睛	1	1
	匡	2	2
눈의 기능	毗(眦)	34	34
	見	191	17
	淚·泣	50	27
	盲	4	4
	瞑	24	20
	視	121	21
	液	71	7
潤	6	1	

【도표】 눈과 관련된 문자를 통한 『내경』의 관련 조문 수

- 出版社 1990年.
11. 李傳課 외11人 著 : 『中醫眼科學』 人民衛生出版社 2002年.
12. 王洪圖 외55人 著 :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出版社, 1994年.

參 考 文 獻

1. 『黃帝內經素問』
2. 『黃帝內經靈樞』
3. 白川靜 : 『字統』, 平凡社, 1986年.
4. 范行准 : 『中國病史新義』, 中醫古籍出版社, 1987年.
5. 蔡炳允 著 : 『漢方眼耳鼻咽喉科學』 集文堂 1989年.
6. 姜忠模 외1人 著 : 眼科에 대한 文獻上에 발표된 發展史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7年.
7. 金聖倍 외2人 著 : 金元四大家의 眼病治療法에 關한 文獻的 研究 外官科學會誌 7卷 1號, 1994年.
8. 馬繼興 著 : 『中醫文獻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9. 唐由之 외5人 著 : 『中醫眼科全書』 人民衛生出版社 1996年.
10. 廖品正 외9人 著 : 『中醫眼科學』 人民衛生